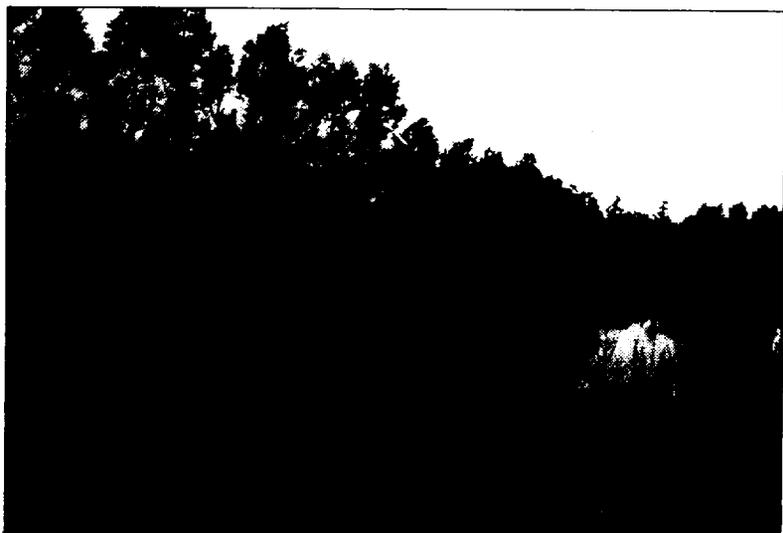


■ 현지 학술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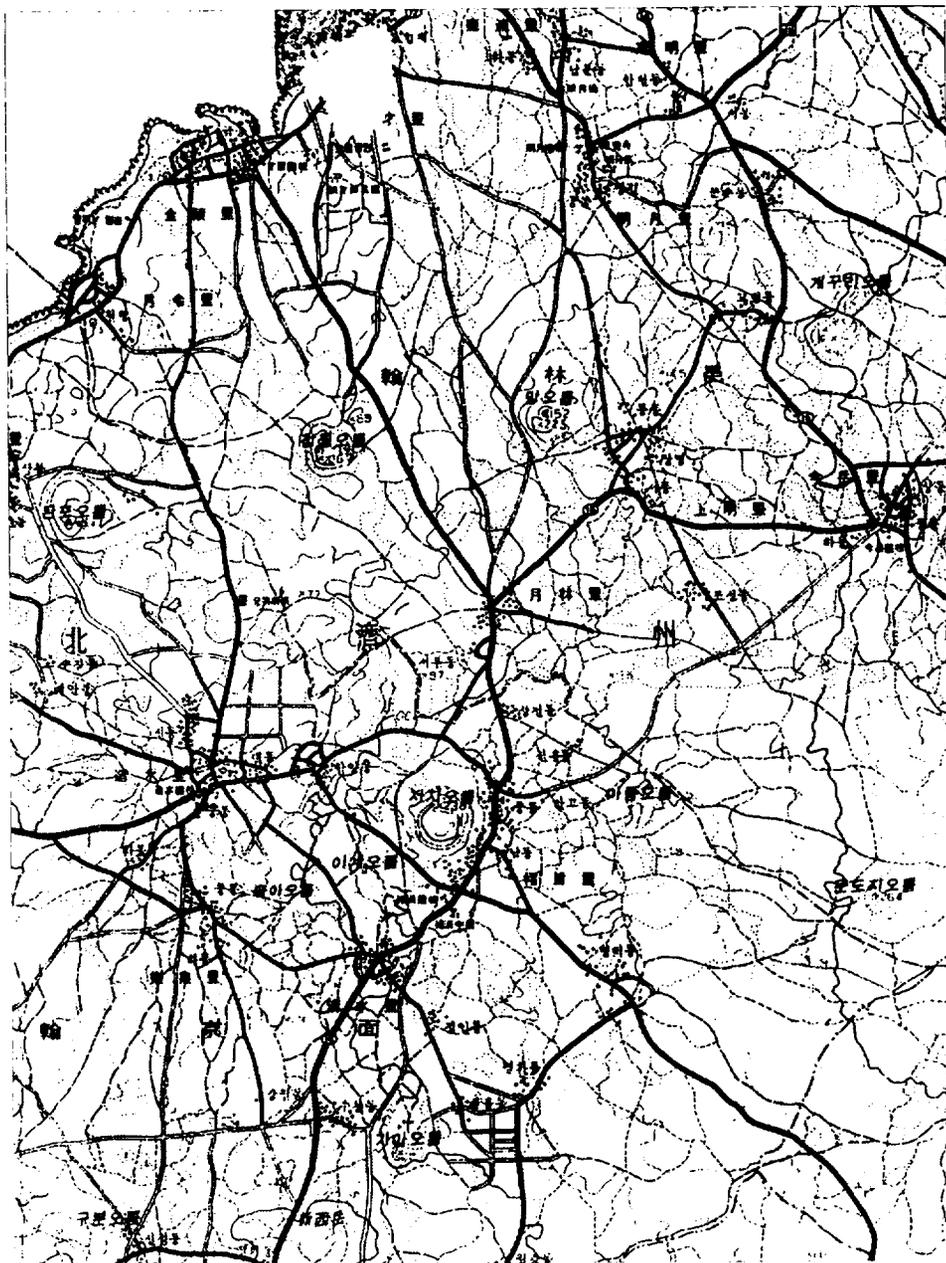
# 北濟州郡 翰京面 楮旨里

1999년 8월 2일 ~ 8월 5일 조사

● 사회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용선달이>



## 社會背景

차 례

1. 조사경위
2. 지리적 환경
3. 역사적 배경
4. 인문환경
5. 산업환경

### 1. 조사경위

이번 학술조사는 1999년 8월 2일(월)부터 5일(목)까지 3박 4일 동안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에서 실시하였다. 사회배경 조사반에서는 한경면 저지리의 지리적환경, 저지리의 설촌 유래 및 역사적 배경, 인문환경, 산업환경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자연환경 조사에서는 이 마을이 중산간이므로 마을 주변 오름과 물통(못)의 위치 파악과 지명유래 조사에 중점을 두었고, 역사적 배경 조사에서는 설촌 및 지명의 유래, 근대화 시기의 과정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인문환경과 산업환경 조사에서는 세대별 인구분포도, 기관현황, 교육, 토지이용도, 작물수확량, 주소득원, 관광명소 등을 조사하였다. 제보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을 우선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청력이 좋고 마을 현황 전반에 관하여 잘 아시는 분, 김군칠 할아버지(94세), 노인회장인 최운화 할아버지(69세)의 도움을 얻어 오름·지명이름, 물통 위치, 설촌유래를 조사했으며 인문

환경과 산업환경은 북제주군청, 환경면사무소, 저지리사무소, 환경농협, 저지초등·중학교의 관계자 분들과 통계자료를 통해 조사하였다.

## 2. 지리적 환경

저지리는 북제주군 환경면에 속해 있는 중산간 마을로 한림읍 한림리에서 남동쪽으로 16km, 환경면 신창리에서 동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중동, 남동, 성전동, 명리동, 수동의 5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 마을로는 금악, 조수, 낙천, 청수, 월림리 등이 있다. 저지리는 중산간 마을이기 때문에 주변에 오름이 많고, 용천수가 있는 해안 마을과는 달리 물이 귀했었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대개 오름 기슭에 물통을 만들어 두고 빗물을 받아 써야 했다. 마을에 자리한 오름은 새오름(저지악), 마종이(마종악), 이계오름, 마오름 송아오름 등이 있고 물통(못)은 용선달이, 진천이못, 앞새물, 뒷새물, 되빌레물, 안소랭이, 밧소랭이 명이동못, 강정 등이 있는데 각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오름

· 새오름(저지악) : 마을의 祖山, 중동에 위치해 있으며 닭이 알을 낳는 형상이라고 한다. 꼭대기가 분지이어서 혈이 없다고 하며 빈오름이라고 부른다. 높이 239.9m.

· 마종이(마종악) : 중동에 위치. 오름이 ‘말 듣는’ 형상이라 하여 ‘마종이’라 부름. 형치가 좋고, 땅이 여물어서 물통 파기에 적합하다. ‘새오름 열 개 쥐도 마종이 하나와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을에서 귀하게 여기던 혈지이다.

· 이계오름 : 풍수지리학상 새오름은 닭이 알을 낳는 형상이라 하고

이계오름은 그 알이 부화하여 병아리 두 마리가 떨어져 나와 생긴 오름이라 한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판 굴이 많이 있다. 높이 167.7m.

· 마오름 : 새오름 마쪽(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새오름 마쪽에 있는 오름이라 하여 마오름이라고 부름. 높이 122m.

· 송아오름 : 수동에 위치 송아지 모양의 오름

## 2) 물통(못)

· 용선달이: 수동에 위치해 있는 못으로 식수용 3개와 우마급수 2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나 지금은 4개의 못 밖에 없었음. 예전에는 못 주변에 팽나무들이 울창했었다고 한다.

· 진천이못 : 수동에 위치.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안쪽은 식수, 나머지는 우마급수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 되빌레물 : 마종이 북쪽 길가에 있으며 물통 팔 땅을 내놓은 훈장 조종무와 수감 고귀현의 기념비가 있다.

· 앞새물 : 마종이 앞쪽에 있는 오랜 못. 밭 입자였던 양왓득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 뒷새물 : 마종이 뒤쪽에 위치. 나무가 울창함. 마종이 주변 물통 중 가장 오래된 물통.

· 알못 : 중동에 위치. 우마급수용.

· 안소랭이 : 명리동 안쪽에 있는 못. 식수용으로 사용.

· 밧소랭이 : 명리동 바깥쪽에 있는 못. 명리동 봉천수 중 가장 큰 물통.

· 장정(물) : 문도지 오름등지에서 방목하던 소·말들에게 물을 먹이교 태우리들이 휴식을 취하던 월대가 있음. 물통 규모가 크다.

· 장왓곳(물) : 새오름 동남녘 기슭에 있는 물. 새오름에서 발원한 유일한 샘물. 서쪽에 서동쪽으로 나는 물이어서 역수이며 하루 한 허벅 정도 물이 나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큰 못이었지만,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점차 축소.

저지리 물통은 2월에 판다. 물통이 들어서게 되는 곳은 빗물이 잘 흘러내려야 하고 물이 잘 고이는 곳이어야 한다. 새오름은 석회질 성분의 땅이어서 물이 고이지 않으므로 물통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물이 잘 고이는 마중이 오름 주변에 물통을 많이 만들었다. 예전에는 물통을 팔 장비가 열악하였다. 따라서 물통을 파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는 마을의 큰 일이었다. 국토지리원이 1976년에 발행한 <정밀토양도>에 따르면 저지리의 토양은 中文-吾羅-舊左 토양군에 속한다. 이 토양군의 특질은 용암류대지로 배수가 양호하며, 토심은 보통이다. 또한 농갈색인 미사식양질토로 자갈, 바위, 혹은 둥근바위가 있는 토양이다. 토양의 형태적 특성은 표토는 흑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이고 심토는 암갈색의 자갈이있는 미사질양토이다. 이 토양의 자연비옥도는 낮고 유기함량이 매우 많은데 토양반응은 약한 산성 내지 매우 약한 산성이다. 이 토양의 대부분은 야생초와 임지이며 식생은 좋지 못한 편이다. 환경사지에 분포된 토양 중 일부는 개간되어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 3. 역사적 배경

저지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사적 기록은 없다. 단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약 420여 년 전에 양씨가 수맥을 따라 들어와 용선달이에 와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후 차차 물골(지금의 수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점점 지대가 높은(聳) 새오름 남쪽 기슭으로 사람들이 이주하여 현 위치로 중심 위치가 옮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설촌유래의 다른 설은 새오름 남녘 기슭에 전주 이씨 입도조인 광빈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씨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살았다는 설이 있으나 이 곳 어른들의 견해로는 광빈이라는 사람은 한림읍 수원리에 살았으며 묘만 저지리에 와서 썼다고 한다.

저지의 옛 이름은 닥므르(닥뭉)였으며 이는 새오름 기슭에 큰 닥나무(楮木)가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고 하고 ‘므르(杼)’는 점점 물골보다 높은 지대로 이동했다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설은 새오름에 오름 허릿당(堂)이 있어 당므르(堂杼)라 하고 나중에 닥므르(닥뭉)라 하여 저지로 변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저지리는 계룡리→닥므리→저지리로 마을 이름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당뭉 6골’이라 하여 명리동, 남동, 중동, 수동, 동동, 음부동으로 6개의 자연부락이 있었으나 동동은 4·3 당시 소개작전으로 폐동되고, 음부동은 월립리로 편입되었다. 그 후에 성전동이 새로 생겨 현재 이 마을은 중동, 남동, 성전동, 명리동, 수동 총 5개동 17개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용선달이(수동)에는 일제 시대에 생긴 도수장이 있었다고 한다. 청수, 조수, 낙천, 저지, 상명, 금약등 6개리에서 소를 잡으려면 이 곳에서 잡아야 했다. 지금은 대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해방 후에는 지서가 있는 본동과 명리동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였으며, 4·3때 명리동 사람들이 폭도로 몰려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한다.

#### 4. 인문환경

1998년 조사에 의하면 저지리의 가구수는 383세대 1,176명이 살고 있다. 이는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이다. 한경면에서도 고산1리의 2,1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다. 한경면에 속해 있는 마을과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고산1	고산2	저지	신창	조수1	조수2	판포	두모
2,115	785	1,176	1,059	880	174	669	597
산양	용수	청수	한원	용당	낙천	금등	
592	591	582	342	339	231	178	

(북계주군청, 1998년 조사. 단위 : 명)

저지리의 세대별 인구분포도를 보면,

	총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남	584	59	91	144	102	61	61	49	15	1	1
여	592	63	89	105	61	55	83	89	35	21	1
합계	1,176	122	180	249	163	106	144	138	50	22	2

(복제주군청 1998년 조사, 단위: 명)

세대별 인구 분포표에서 보여지듯이 고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많다. 이는 여성 평균수명이 남성 평균수명보다 높은 이유도 있겠으나 4·3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와 30대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마을이 번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청초등학교는 1950년 5월 저청국민학교로 인가받아 1950년 6월 1일 저지리와 청수리 중간 지점인 현재 저지리 1515번지에 개교했다.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나 '저청중학교 살리기 운동' 이후 인구 유입으로 작년 96명이었던 학생수가 현재 160명에 이르고 있다.

<저청초등학교 학년별 학생수>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남	70	13	12	7	18	9	11
여	90	21	8	14	12	17	18

(저청초등학교 1999년 8월 현재, 단위 : 명)

저청중학교는 1964년 3월 10일에 개교하였다. 1973년 2월 28일부터 6학년 증설 인가를 받았으나 인구이동으로 91년부터 학생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1997년도 졸업생이 40명에 이르렀다. 초·중학교 통폐합으로 학생수가 90명 미만이면 폐교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으로 저청 중학교는 폐교될 위기에 처했으나 저지·청수리에서 '저청중학교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공가(空家)를 개·보수하여 5년간 무상임대, 초등

학생 급식비 보조, 중학생 급식비와 육성회비 보조 등의 혜택을 주어 현재 저지리에 17가구, 청수리에 17가구가 이주했으며, 현재 학생수는 90명에 이르고 있다. 10년간 졸업생의 수와 현재 학생 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졸업생수>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졸업생수	89	80	59	67	34	56	36	40	40	31

(저청중학교, 단위 : 명)

<학생수>

학 년	1	2	3	계
학 급	1	1	1	3
남	14	14	18	46
여	21	12	11	44
계	35	26	29	90

(저청중학교, 단위 : 명)

<기관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파출소	보건소	농협분소	신용협동조합
1	1	1	1	1	1

우체국은 예전에 있었으나 IMF한파이후 구조조정으로 폐소되었으며, 관광명소로는 분재예술원이 있다. 절은 성불사와 학림사가 있고, 개신교로는 저청중앙교회가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불교신자이고, 천주교 신자는 청수에 위치한 청수 공소에 다니며, 극소수이다.

## 5. 산업환경

저지리의 경제 생활권은 한림읍 중심이며, 주 소득원은 축산, 감귤, 화훼, 보리이다. 밭농사는 보리, 콩, 겨울 감자 순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작목반은 11개반 189명이며, 감귤, 노지, 키위, 화훼, 포도, 배, 단감, 분재단지에 이용된다. 목축 방목지는 문도지오름 위주이며, 마을의 토지이용도는 아래와 같다.

총면적	전(田)	과수원	임야	대지	기타
1,596,2	424,5	130,3	879,6	20,3	141,5

(한경면사무소 1998년 조사. 단위 : ha)

최근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특수 작물을 재배,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비닐 하우스 토지의 면적과 농가의 수는 아래와 같다.

감귤하우스	키위시설하우스	화훼	포도	배	단감	분재단지
8ha	3.6ha	2.2ha	0.8ha	0.8ha	0.8ha	4ha
24농가	6농가	4농가	3농가	2농가	3농가	7농가

(저지리사무소 1998년 조사)

저지리의 농업 생산량은 감귤 3,500톤, 보리 356톤, 콩 296톤, 겨울감자 216톤, 양배추 126톤, 양파 90톤, 마늘 81톤, 유채 6톤이다.

농작물	감귤	보리	콩	겨울감자	양배추	양파	마늘	유채
생산량	3,500	356	296	216	126	90	81	6

(한경농협 1998년 조사. 단위 : 톤)

■ 조사자 : 좌성환(94), 김민영(97), 홍지영(97), 이현정(98), 우형훈(99)

# 方 言

## 차 례

1. 머리말
2. 조사 어휘
  - 1) 기구명
  - 2) 동물명
  - 3) 인체명
  - 4) 기타
3. 조사를 마치며

## 1. 머리말

이번 방언 조사에서는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 마을에서 1999년 8월 2일에서 8월 5일까지 행하여진 학술조사에서 조사된 방언을 수록하고 있다. 저지리가 제주의 중산간에 위치하고있는 까닭에 바다에 관련된 어휘들은 찾기가 어려우므로 주로 기구나 집안 가재도구, 인체에 관련된 어휘를 조사하였고, 조사상의 효율을 위해 조사자들은 미리 조사의 기본이 될 어휘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제보자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1:1의 면담을 하였고, 마을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은 조사지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보자들을 따로 두지 않았으며 주로 50대 후반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녹음과 필기를 같이 사용하였는데 필기는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말들도 있어서 주로 녹음을 하고 나중에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며 자료를 정리하였다. 표기는 『제주어사전』(제주도, 1995)에 따라 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발음들은 기록에서 제외시켰다.

<제보자>

1. 김계춘(여·77세) : 저지리 중동에서 60년 거주. 시집오기 전에 조수 거주. 치아상태, 청취능력 양호 야학으로 글을 배움
2. 임신생(여·79세) : 저지리 남동에서 60년 거주, 시집오기 전 동광 거주. 4·3사건 때 소개령이 내려지자 고산 거주. 치아상태 보통, 청취능력 양호.
3. 김영희(여·65세) : 저지리 본토박이로 계속 중동거주. 야학으로 글을 배움. 청취, 치아상태 양호, 표준어와 방언 사용
4. 김영하(여·64세) : 저지리 본토박이로 계속 중동거주. 저지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음. 일본에 20일 정도 살았고, 4·3사건 때 고산에서 1년 살았음.
5. 홍대회(남·63세) : 저지리 본토박이로 중동 거주. 청취, 치아 상태 양호.
6. 양순영(여·80세) : 저지리 본토박이로 성전동거주. 치아상태는 좋지 않으며, 청취 능력은 보통.

그 외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신 성전동에 거주하시는 할머니 두 분.

## 2. 조사 어휘

### 1) 기구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저지마을의 방언형	비고
체	체	체	cf) 대체', 거름체, 총체, 중체, 합체, 굴체
절구	방에	방에	cf. 남방에, 몰방에
맷돌	꺾레	꺾레	cf. 물고레, 돌고레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저지마을의 방언형	비고
화로	화리	화리	cf. 늦화리
도리깨질	도깨질	도깨질	
항	망대기	망대기	용기의 일종으로 항아리 보다 작은 것. 항>망대기>단지
호미	굴갱이	굴갱이	
낫	호미	호미	
빗	얼레빗	얼레기	cf) 챙빗(춤춤한 빗)
톱	톱	거두	
절구공	방앳귀	방앳귀	
삼지창		흔끄	근래에 와서야 생긴 것
줄	줄	가린석 <sup>2)</sup>	
도끼	도치, 도끼	도치	cf) ㄹ갱이(땅 파는 것) 미(돌깨는 것)
거울	색경	색경	
먹이 그릇	도고리		cf. 가축에 쓰는 것
디딤돌	이힛돌, 잇돌	지돌판	
국그릇	대왓	대왓	
바늘	바농	바농	
방망이	마계	마계	다듬이질이나 빨래할 때 쓰는 것
인두판	윤디판	윤디판	
국그릇	통사발	통사발	
물건 걸걸질	복닥	복닥	
	얼맹이	얼맹이	
작은 바가지	쿨박	쿨락박	
	배수기	배수기	밥 짓는 기구
	잡대	잡대	밭 가는 기구
길마	질메	질메	
		따비 <sup>4)</sup>	
베틀	베클	베클	cf) 벼올래(베틀사이) 미녕차다 <sup>3)</sup> 혼발(40자) 버디집(실을 피서 올릴 때 사용하는 나무)
고무래	곰배	곰배	
도마	듬베	듬베	
비	깍리박	꼴리박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저지마을의 방언형	비고
		홀갱이 <sup>5)</sup>	
	망울	망울 <sup>6)</sup>	
호롱박	조롱박	조랑박	
	통사발	통사발 <sup>7)</sup>	
도투마리	도꾸마리	드꼬마리 <sup>8)</sup>	
자귀	자구	자귀 <sup>9)</sup>	
대야, 장그 룻	장태	장태	
	대바지	대배기	
바구니	구덕	구덕	
다듬이돌	돌안반	안반	
명에	명에	명에	
마차	마채/마차	구루마	cf)물구루마
국자	남자, 국자	남자	
명석	명석	독석	
나무바가지	남박새기	남박	
판주리	채룽/차룽	차룽	
바가지	곰박	곰박 <sup>10)</sup>	

주)

- 1) 대체 : 유채같이 큰 것들을 거르는 체  
 거름체 : 조와 깨를 거르는 체  
 총체 : 말총으로 만든 체.  
 중체 : 크기가 중간인 체.  
 합체 : 입자가 아주 미세한 것을 거르는 체.  
 굴체 : 소를 키우다 나온 배설물과 출을 나르는 데 사용하는 기구.
- 2) 가린석 : 제주 방언에서 가린석은 발을 갈 때에 왼편으로 쇠머리에 썩  
 워진 긴 고삐.
- 3) 미녕 차다 : 배틀을 이용해서 옷감을 만듦다.
- 4) 따비 : 발 갈 때 돌을 끌라내던 기구.
- 5) 홀갱이 : 낙엽 등을 긁을 때 사용하는 기구.
- 6) 망울 : 소 입에 짚으로 엮은 끈으로 묶어 소가 일을 할 때 먹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 7) 통사발 : 통이 깊고 넓은 그릇.
- 8) 드꼬마리 : 천이나 베를 짤 때 날을 감아 베를 앞다리 너머의 체 머리

위에 엮어두는 틀.

9) 자귀 : 나무를 깎아 만드는 연장.

10) 곰박 : 국자 모양으로 만들되 우묵한 바닥에 구멍을 숭숭 뚫어 물에 삶은 떡 따위를 건지는 데 쓰는 제기.

## 2) 동물명

표 준 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저지마을의 방언형	비 고
병아리	빙애기, 비애기	빙아리	cf) 둥통애(병아리 깨는 곳)
장닭	장돛	장돛	
지네	지냉이	주냉이	
쥐	쨩이	쨩이, 중이	
감자리	밤부리, 물자리, 물젤	밥주리	왕반:큰 감자리, 족반:작은 감자리
매미	자열, 재열	자열	왕자열:왕매미, 족매자열:작은매미
까마귀	가메기	가마귀	
메뚜기	말축, 만축	만축	
돼지	돛, 웨야지, 도야지	웨야지, 돛	
소	쉐	쉐	

## 3) 인체명

표 준 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저지마을의 방언형	비 고
손목	홀목	홀목	
볼, 얼굴	양지	양지	
목	야개기	야개기	
무릎	독므릅	독므릅	
팔	풀	풀딱지	
발목	발목	귀마리	귀마리 : 제주 방언에서 는 북송아빠나 발꿈치를 이룰 때 쓰는 말

표 준 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저지마을의 방언형	비 고
종아리	쥐솔	쥐솔	
허벅지	허벅지	허벅다리	
엉덩이	엉덩이	엉등팽이	
허리, 옆구리	옆갈리	옆갈리	
어깨	독지	독지	

#### 4) 기타

(1) 불칸 당머리 : 4·3사건때 소개령이 떨어진 당시 집이 불에 타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유래된 말로 물이 귀한 곳이라는 뜻(地名).

(2) 당물 : 저지리(地名)

(3) 따비 : 새밭하는 사람

(4) 월대 : 공거리

※ 정수남 그늘 : 일제시대 사용하던 방언.

(속담)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정수남 그늘에 앉아 장구만 떠더덩 떠더덩 두는군

(5) 벨랑 : 별명

(6) 두루막 : 두루마기

(7) 고소리 : 술 담그는 것

(8) 굴묵진다 : 불을 때다

(9) 김질 : 잡초

(10) 대비 : 양말

(11) 흥갱이 : 구멍, 틈새

(12) 대배기 : 술 받는 병

(13) 시리짚 : 떡 치는 것

(14) 갈중이 : 갈옷

(15) 국새 : 나무 파는 것

- (16) 멘헤 : 면화
- (17) 머중약 : 저지리에 있는 오름의 이름
- (18) 올래 : 거리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드나드는 좁은 골목
- (19) 재지 : 유채
- (20) 불미 : 대장간

### 3. 조사를 마치며

저지리 방언을 조사하면서 특이하였던 점은 저지리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산간에 위치한 특성 때 문인지 아니면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의 경계지역에 있어서인지 다른 지역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방언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 조사자 : 김영수(94), 강선하(97), 강은실(98), 김시은(97), 강미숙(97), 윤중현(98), 김민정(98), 강진혁(99)

# 民 謠

## 차 례

1. 조사배경	6) 물통 파는 소리
2. 노동요	3. 의식요
1) 검질 메는 소리(사대소리)	1) 상여소리
2) 방아 짙는 소리	4. 기타
3) ㄴ레 ㄴ는 소리	1) 자장가(애기흥그는 소리)
4) 밧 불리는 소리	2) 시집살이요
5) 출 베는 소리	

## 1. 조사배경

민요반은 예비조사 때 채록했던 민요들을 중심으로 좀더 많은 제보자들의 제보들을 통하여 예비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더불어 더욱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민요수집에 중점을 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노동요, 의식요, 기타 민요들로 나누어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물통 파는 소리’는 중산간 마을로 물이 귀한 저지리에서나 들어봄직한 민요로 옛부터 내려오는 ‘물통 파는 소리’는 아쉽게도 전해지는 민요가 없어서 몇 년전 한라문화제에 참가하면서 만든 창작민요 ‘물통 파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후렴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보받을 수 있어서 실을 수 있었다.

## 2. 노동요

### 1) 검질 메는 소리

중산간에 위치한 저지리는 옛부터 밭에서 일하면서 부르던 노래들이 많다. 특히 검질매는 소리는 이러한 노동요 가운데에서도 많이 불려졌던 노래로서 사대소리는 여자들이 흔히 불렀고, 출베는 소리는 남자들이 많이 불렀다 한다.

#### (1) 검질 메는 소리 (사대소리)

-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1차 조사
- 제 보 자 : 박봉오 할머니(여). 성전동(신흥동) 거주, 저지리 토박이
- 조사장소 : 저지리 마을회관  
(이하 제보자명만 기재)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 물러나가라  
어기여랑 사대야  
선소래랑 굿이나망정  
훗소래랑 커쟁커쟁  
앞명에랑 들어나오곡  
허당은 당소리로 앞명에 간다  
아허히여랑 사대야

#### (2) 검질 메는 소리(사대소리)

-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2차조사
- 제 보 자 : 김태화 할머니(여·70세). 성전동 거주, 김신화, 김춘화 할머니와 자매  
관계
- 조사장소 : 김태화 할머니댁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앞명~허야 들어나오라  
 뒷명~허야 무너나나라  
 어명~어야 곧아장아장  
 흔저오랜 눈이나 친다  
 흔저오랜 손이나친다  
 앞명~허야 꽃산이로다  
 뒷명~허야 꿩지로구나1)  
 어리~어~랑 사대로구나  
 저래~가는 청비발2)이야  
 요에~혜나 도웨영글라

(3) 검질 메는 소리(진사대소리3))

-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2차조사
- 제 보 자 : 양순녀 할머니(여·80세). 성전동 거주, 한림읍 상명리에서 태어나서 23세에 저지리로 시집옴
- 조사장소 : 김태화 할머니댁

어기~여~랑~~~ 사대로구나  
 검질깃곡 골눓은 발에  
 진~~~~사~~~대~~부~~르~~명 매자  
 어기여랑 사대로구낭  
 요발 즈근털4) 다 뎨5)긔치 모다들자

---

1) 김매어 놓으니 꿩지가 되었다.  
 2) 처녀  
 3) 보통 사대소리보다 가락이 긴 사대소리를 말함, 창자는 호흡이 길어야 한다.  
 4) 같이 일하는 사람들  
 5) 모두

## 2) 방아 찧는 소리

(1) 절구 찧는 소리(방에 노래)

· 제보자 : 박봉오 할머니

이여이여 이여도 하라  
 요방애 호기나 둘러 좋을적에  
 식콜방에<sup>6)</sup> 새나 동동 맞으며 한다  
 이여이여하 이여도 하라  
 이여이여하 이여도 하라

(2) 방아 찧는 소리(방에 노래)

·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1차조사

· 제 보 자 : 좌효천 할머니(여·77). 중동 거주, 저지리 출생, 8살 때 일본에 건너가 22살까지 일본에서 살다옴. 비교적 치아상태가 고르고 발음이 좋아 채록이 비교적 정확함.

· 조사장소 : 좌효천 할머니댁

이여이여하 이여도하라  
 이여이여하 이여도하라  
 가시오름 강당장 집이  
 식콜방에 새글림서고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일천승업 일천조훤  
 다들여간다 음~ 이여도하라 음~  
 이여이여하 이여도하라  
 그 스린 듯이 드름을 돈데  
 근심 그득 (칭취불능)  
 푸는체가 걸음을 건다

---

6) 방아

이여이여하 이여도하라  
천걸음체 강장을 들고  
한바깥에 지붕에 오른다  
이여이여하 이여도하라  
가난한 집이 든다섯 성채  
다섯돌 방에 새맞아서라  
오동동동 이여도허랑

(3) 방아 찧는 소리(남방에 노래)

-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1차조사
- 제 보 자 : 변정생 할머니(83세). 남동 거주, 월림 출생, 20살에 저지리로 시집옴
- 조사장소 : 동네어귀 변정생 할머니 친구분덕

가시오름 강당장 집이  
상하절에 매물이 들영  
유기전답 날 아니 준들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방엿골에 날 아니 주리아  
이여 이여 이여도 하라<sup>7)</sup>  
식쿨방에 새글럼서라  
저산저기에 쉬여가면  
느시아방 영리방<sup>8)</sup> 들영  
우리성제 삼성제 들영  
삼~식~쿨~르 절 꺾어 주마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 허랑

---

7) 방에 짓는 소리

8) 감투쓰는 것

### 3) 그래 그는 소리

#### (1) 그래 그는 소리

· 제보자 : 좌효천 할머니

이여~이~여~어~형~이여도 흐라  
 이여~이~여~어~형~이여도 흐라  
 나 놀래랑 산 넘어가라  
 이여~이~여~어~형~이여도 흐라  
 요 놀~래~랑 물 넘어가라  
 이여~이~여~어~형~이여도 흐라  
 흐를 즈냐 밀 닷말 그<sup>9)</sup>난<sup>9)</sup>  
 주덕삼매가 다섯착이로구나  
 이여~이~여~어~형~이여도 흐라  
 시아바님도 하나 혼착  
 시어머님도 하나 혼착  
 이여~이~여~어~형~이여도 흐라  
 시누이도 하나 혼착  
 서방님도 하나 혼착  
 아기도 하나주난  
 나적신 반착이로구나  
 이여~이~여~어~형~이여도 흐라

#### (2) 그래 그는 소리

· 제보자 : 김태화 할머니

· 구연상황 : 한 속으로 그래(맷돌)을 갈고, 한손으로 곡식을 넣는 시늉을 하며  
    빠르고 흥겨운 느낌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여 이여~이여도 흐다

---

9) 품삯으로 받은 밀 다섯말로 떡을 만들.

이여 이여~이여도 한다  
요그레야~질긴영말라<sup>10)</sup>  
느가 거 어떻한  
나 어깻들민 서근냥 부시대기듯 흐키여<sup>11)</sup>

#### 4) 밧 불리는 소리

##### (1) 밧 불리는 소리

· 제보자 : 좌효천 할머니

어러~어럴~여~  
요 몰덜 주러  
돌돌 어러러러러  
뱅뱅뱅뱅  
아니 뽀아난 덕만 불으라  
어러~랑 아랑 어러럴~하어러~  
요몰덜아 아니 뽀아난 덕만 불르라  
어라~랑~ 하랑~

##### (2) 밧 불리는 소리

· 제보자 : 최원담 할아버지

어랑허랑 돈돌돌돌  
고불고불 잘 돌아 굴려주라  
야 어어~~~ 어러러러 돌돌돌돌  
(칭취불능) 자궁<sup>12)</sup> 일치마랑<sup>13)</sup>

---

10) 무겁다.

11) 무거워도 안무거운 듯 하라.

12) 발자국

나도 남은 어명이여  
 어여어~~~~으 어러러러러 돌돌돌돌  
 날은 덩고 뱃은 나고  
 어찌흐면은 풍년이 들게  
 잘벌게 씨가 녹아  
 득근 득근 잘볼려주라  
 어여어~~~~어랑허랑

### 5) 출 베는 소리

검질 메는 소리(사대소리)가 여자들이 일할 때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면 이 출 베는 소리는 남자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이다.

- 조사일자 : 1999년 8월 3일 4차조사
- 제 보 자 : 최원담 할아버지(남·80세). 남동 거주, 젊을 적에 함경도, 일본 등지로 자주 왕래한 이주 경력이 있음
- 조사장소 : 최원담 할아버지댁  
 (출 베는 소리는 출 베면서 부르던 노래로 출을 베지 않은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나 조금만 부름)

시르령 시르령  
 낮질<sup>14)</sup> 흐는 소리에  
 우리 역군님<sup>15)</sup>네 노력덜 합시다  
 (이하 생각 안남)

### 6) 물통 파는 소리

중산간 지역인 저지리는 옛부터 물이 귀한 동네였다. 그래서 우물을

13) 잘 불리다.  
 14) 낮베는 소리  
 15) 같이 일하는 사람들

파는 일이 많았는데 이때 일의 힘겨움을 노래를 부르면서 풀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물통 파는 소리’(물통하는 소리)이다. 그런데 학술조사 당시에 만난 제보자들에게 물통 파는 소리를 청하였으나 대다수가 전해지는 ‘물통 파는 소리’는 없다 했고, 제보자 가운데 유일한 남자 제보자였던 최원담 할아버지만이 옛부터 전해지는 물통하는 소리는 있었으나 지금은 기억이 안나서 못부르겠다고 했다.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이러한 ‘물통 파는 소리’는 일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일이 다 끝나서 힘겨움을 잊기위해 놀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

다음의 ‘물통 파는 소리’는 한라문화제 출전을 위하여 창작한 노래 가운데에서도 후렴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선소리와 후소리가 번갈아가면서 불러진다.

· 제보자 : 선소리 - 김춘화할머니

후소리 - 김신화할머니

아~~~양 어~~~양 어~~~야

1. 우리동넨 물귀한 동네

훈장님<sup>16)</sup>이 땅을 주어

아~~~양 어~~~양 어~~~야

2. 남녀노소 워령<sup>17)</sup>하여

물통을 다파니 비가 왔네

아~~~양 어~~~양 어~~~야

3. 천지신명님 주신물은

우리모두가 맛을 보니

아~~~양 어~~~양 어~~~야

4. 물도 곱고 맛도 좋아

온천하에 명수로다

16) 마을의 큰어른(부자어른). 훈장이 땅을 내줘서 무통을 팔수 있었다.

17) 한집에 한사람씩 나가서 일을 다 같이 함.

- 아~~~양 어~~~양 어~~~~야
5. 고맙수다 고맙수다  
천지신명님 고맙수다  
아~~~양 어~~~양 어~~~~야
6. 경사로다 경사로다  
우리 당므르<sup>18)</sup> 경사로다  
아~~~양 어~~~양 어~~~~야
7. 훈장님이 땅 주신 덕에  
고운물 먹게 된 경사로다  
아~~~양 어~~~양 어~~~~야
8. 오늘같이 좋은 날은  
남녀노소 모두나왕  
아~~~양 어~~~양 어~~~~야
9. 훈장님얼 모셔다 놓고  
그 공덕을 그리면서  
아~~~양 어~~~양 어~~~~야
10. 고맙수다 고맙수다  
우리 훈장님 고맙수다  
아~~~양 어~~~양 어~~~~야
11. 불근 당므르 물귀한 땅에  
신이 주신 우리 므르  
아~~~양 어~~~양 어~~~~야
12. 고운 물이랑 사람먹고  
구진 물이랑 므쉬<sup>19)</sup>주고  
아~~~양 어~~~양 어~~~~야

---

18) ① 닭나무가 많아서 당므르 ② 청수에서 보면 저갯동네가 새끼 품은 닭  
형세여서 당므르(닭+므르)

19) 마소[馬牛]

13. 손씻어난 물랑 도새기주고  
    늦씻어난 물랑 발씻으멍  
    아~~~양 어~~~양 어~~~야
14. 워령호명 공들영 호든물 즈손만대 물려주세  
    아~~~양 어~~~양 어~~~야
15. 고맙수다 고맙수다  
    향원님<sup>20)</sup>네 고맙수다  
    아~~~~양 어허~~~~어요

### 3. 의식요

#### 1) 상여소리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던 노래로 여기서 채록된 내용은 선소리에 해당하며 선소리와 후소리로 나뉘어져 불리는 노래로 저지리 지역에만 있는 노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리우는 노래이다.

· 제보자 : 최원담 할아버지

천지현황 생긴후에<sup>21)</sup> 일월영척이 되엄서라<sup>22)</sup>  
삼천이 개탁하니 만물이 흥색이라  
산논길을 기울적에<sup>23)</sup> 어여목이 논단호고  
세상이 말쑥하니 어여목<sup>24)</sup>이 논단호고  
세상이 말쑥하니 풍수법이 일어났다

---

20) 동네사람들

21) 하늘과 땅이 생긴후에

22) 날이 밝았다 어두웠다 함.

23) 산의 풍수를 보는 것

24) 신명(神名)

부귀와 영화는 산천바롱 학동의 영귀로다<sup>25)</sup>  
그 네룡 청탁을 누가 분배를 흐리요  
골룡산<sup>26)</sup> 대한용은 황하수위 재배하고  
백두산 조용봉은 압록강이 상응하고  
태백산 완곡산을 골룡산이 자손이요  
각설산 봉황산은 골룡산이 여기로다  
조선국 팔도강산을 영력히 돌아보니  
함경도 대패영은 대동강이 여기로다  
영배산이 예맥이리요  
황해도 구월산은 수양산이 호저로다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수위 회수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태백산이 대식이요  
충청도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경상도 동산은 낙동강이 원조로다  
전라도 지리산은 월출산이 상응하고  
용삼마 절산막은 특수록이 두고  
(기억안남)  
혈산도 하고할사 위층구산이 하실적에  
서녕북위 채원하고 장포영약 하실손가  
탐라제주 한라산은 천리내중에 일색지지  
청용백호가 분맹하니  
성저수쟁 무과급제  
외저손에 무과급제  
천하영웅 진시황도 만리장성을 둘러보세  
염라대왕은 못막았고  
소진장에 부비내도 염라대왕 목달래요

---

25) 죽어서 가도 좋다.

26) 중국에 있는 산이름

일생일손 못나가서 저스끼리 멀다해도  
대문밖에 저성이요  
천초만런 살으지고 적과구로 다하여 보자

## 4. 기타

### 1) 자장가(애기흥그는 소리)

#### (1) 애기흥그는 소리

· 제보자 : 박봉오 할머니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할망 손지 왕이자랑  
돈물든밥 재와줍서  
구덕이랑 집을 삼고  
할마님은 어쩔 삼양  
벗으랑 저랑 흥는  
(칭취불능)  
우리아기 밤이랑 물외크듯 키와줍서  
낮에랑 춤외크듯 키와줍서  
할머님즈속 할머님 밑으로 명 키와상 흥는 법이로다  
열다섯 십오세 전에  
할마님이 우리 다다름네다  
심중 모르게 자논 키와줍서  
알듯 모르듯 꼬덕꼬덕 키와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왕이자랑 소리에 자는구나

노는 걸랑 노는 소리  
자는 걸랑 자는 소리  
내 스망 우리아기 잘도잔다 잘도잔다  
왕이자랑 왕이자랑

(2) 애기흥그는 소리

· 제보자 : 좌효천 할머니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자랑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저래가는 검둥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왕이자랑 왕이자랑  
이래오는 검둥개야  
우리가기 재와도라  
아니 재와주민 진~진 총베로  
발목다리 손목다리 벌끈 묶엉  
지핀지핀 한천지술에  
들이쳤다 내쳤다 흐키여  
왕이자랑 왕이자랑  
할망손지 잘도잔다  
먼되구덕 서대구덕  
구덕에 좃정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잘도 잔다

(3) 애기 흥그는 소리

- 조사일자 : 1999년 8월3일 4차조사
- 제 보 자 : 이만화 할머니(여·70세). 중동 거주, 양쪽 눈이 어두우나 곧잘 창  
을 하심, 치아상태가 안 좋아 채록이 어려움
- 조사장소 : 이만화 할머니댁

왕이자랑 어여주저  
우리가기 착한아기 잘도잔다  
은저동아 금자동아  
물아래랑 옥돌 ㄱ튼  
우리아기 가만히  
옛날에 ㄱ튼 우리아기(청취불능)  
안락우리 어떡우리아기  
은을주면 이걸주라  
금을주면 이걸주라  
옥을 준들 이걸주라  
제상아기 정을 전들튼  
이걸주랑 은저동아  
금지동아 혼점자랑  
골목질영 저낙허저  
물질허당 저낙허저  
날랜어멍 저낙허저  
(청취불능)  
쇠출주영 저낙허저  
착한건디 어땡허낭  
병신병신 허는구나  
우리아기 즘을자라  
잘도잔다 왕이자랑  
(청취불능) 어떤일로

흔쭈자라 (칭취불능)  
이불꺼여 흔쭈자라  
엉이자랑 엉이자랑 어여주저

(4) 애기흥그는 소리

-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2차조사
- 제 보 자 : 김신화 할머니(여·67세), 성전동 거주, 김신화 할머니(3녀)와 김춘화(4녀), 김태화(2녀) 할머니는 자매관계
- 조사장소 : 김신화 할머니댁
- 구연상황 : 아기를 구덕에 눕히고 양손으로 구덕 안의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잡은 후 계속해서 구덕을 흔들며 부름  
(이후 아기가 자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즉흥가사로 계속해서 애기 흥그는 소리를 함)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저레가는 검둥개야 이레오는 검둥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이리이리 재와주민 총배로 손발뭉텅  
 천지왕에 들이쳤다 내쳤다  
 흐리로다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아기 든밥<sup>27)</sup>떡엿 든쭈자고 노는 소리  
 느네아긴 고치떡엿 우는 소리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에고 쉬----이 자랑'<sup>28)</sup>  
 금도자랑 은도자랑 검둥개야 자랑호저  
 우리아기 재와도라  
 '에고 쉬~~~이 자랑'

27) 민물

28) 아기가 깨나려고 할 때 하는 말

자랑 자랑 자랑 자랑  
돈밥 맥영 돈좁이나 자라두영 영이자랑  
우리아기 물외크듯 키와줍서  
춤외크듯 키와줍서  
논노물 부룻동네 저렁이 키와줍서  
못할일 있으리까  
우리아기 좁잘자고 돈밥먹영 자는소리  
자랑자랑 영이자랑 영이자랑 영이자랑  
우리아기 자는 소리  
우리아기 노는 소리  
돈밥먹영 돈좁자라  
춤외크듯 키와줍서  
물외크듯 키와줍서  
할망손지  
자랑자랑 영이자랑 영이자랑 영이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은을 주면 너를 주라  
금을 주면 너를 주라  
동네방네 우해동아  
일가방상 화목동아  
삼용웃띠 귀엽동아  
울지말고 잘도커라  
자랑자랑 영이자랑 영이자랑 영이자랑  
돈밥먹도 돈좁자라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우리손자 착한손자  
자랑 자랑 영이자랑

(5) 애기흥그는 소리

- 조사일자 : 1999년 8월2일 2차조사
- 제 보 자 : 김춘화 할머니(여·57세). 성전동 거주, 한리문화제에 '물통하는 소리'로 입상한 적이 있음. 다른 제보자에 비하여 나이가 많지 않아 채록하기는 편하나 그 내용의 신빙성은 결여됨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착한거난  
자는소리 나는구나 왕이자랑  
'어마 착하다 어이구 착한 손지 어 기여기여기여 아리고 울  
지마랑 혼저자랑'  
왕이왕이 왕이자랑  
우리아기 착한거나  
돈밥먹엉 돈줍자는소리 나는구나  
왕이자랑 왕이 왕이 왕이 왕이 왕이 왕이자랑  
저래가는 검둥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워주마  
아니아니 재워주민  
질긴질긴 총베로  
발목다리 손목다리 뽕뽕뽕엉  
지픈지픈 천지수에 들이쳤다 내쳤다 흐키여  
왕이자랑  
'아이고~~~ 할망손지 혼저 자라 어 기여기여기여 아이고  
나 아기 오냐'

2) 시집살이요

일하면서 부르던 노래와는 달리 놀면서 부르던 노래

· 제보자 : 좌효천 할머니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 어뭇데가  
아이고 애야 말도말라  
시집살이가 맵다헌들  
고추장이 맵다헌들  
시냇보다 더 매울소나  
장둑그튼 시아방에 암퇘그튼 시어명에  
모질이 그튼 시누이에  
물구렁그튼 서방님에  
살자하니 어이나없구 어이나없어  
어찌하~면 좋으려나  
귀머구리 3년이요  
눈어두와 3년이면  
아홉삼년 살다보니  
가렌말도 없더구나

■ 조사자 : 허은정(96), 이은주(96), 김소연(97), 고지숙(97), 홍인선(98),  
김선희(98)

## 說 話

### 차 례

- |           |             |
|-----------|-------------|
| 1. 닥머루    | 7. 수동이 저지리에 |
| 2. 변찰방(1) | 속하는 이유      |
| 3. 변찰방(2) | 8. 저지악      |
| 4. 변찰방(3) | 9. 도채비악     |
| 5. 논하르방   | 10. 차개동산    |
| 6. 초난밭    | 11. 용선달이    |

이 보고서는 99년 7월 14일 이루어진 예비조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8월 2일부터 5일까지의 본조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북제주군 한경면 저지리는 중산간 마을로서 저지악이라는 새오름을 중심으로 수동·중동·남동·성전동·명이동의 5마울이 모여있으며 그 규모도 다른 마을에 비해 넓은 편이다. 예로부터 이곳은 물이 귀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새오름(저지악), 이계오름, 마중오름(마중악)등 여러 개의 오름과 동산·밭들이 있으며, 마을 곳곳에 성씨의 유래담이 많아 물이나 지명·성씨에 관한 설화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많았다. 우선 이곳은 '물통 파는 소리'로 유명하기 때문에 조사함에 있어서 제보자들이 하여금 그 화제를 민요, 즉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 구전되는 옛 이야기로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으며 남동과 본동을 토대로 한 중동 이외의 다른 동에서는 지명에 관한 이야기만 간혹 있을뿐 설화를

이루는 신화나 전설·민담의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직접 설화를 구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도 어려웠다. 물론 제보자를 찾는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실상 확보된 제보자는 정해진 소수에 불과했으며 제보자의 요건에 맞지만은 이야기하기를 꺼리며 회피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여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에 실린 설화자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때 채록한 내용과 녹음해 두었던 내용의 대부분을 전사한 것으로 일반담·인물담·지명유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내용중 사투리나 고유명사는 각주를 달아 그 단어를 알기 쉽게 풀어놓았고, 【 】 안에는 제보자의 행동이나 어투·표정변화·채록상황등을 정리했으며, 전사시 청취가 되지않은 부분이나 의미 파악이 불분명한 부분은 \*\*\*\*\*으로 표시해 놓았다. 그리고, 전사 내용에는 없지만 ( ) 를 써서 앞, 뒤 문맥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이해를 도왔다.

## 1. 닥머루('닥머루에 가서 물을 달라니까, 술을 준다'는 얘기)

-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1차조사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 제 보 자 : 김군철(남·93세), 저지리 중동 거주, 정정하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서당 훈장을 했음.
- 구연상황 : 이 내용을 구연하는 데 있어 주위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호응하고 맞장구치는 것으로 보아 모두들 들어보았던 이야기인 듯 싶으나 직접 말하기는 꺼려했다.

여기 저지리는 물이 귀한 동네라. 경해부난 옛날에는 장마철에 항아리에다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다른 물 질어다 먹고 그건 놔둔단 말이여. 가뭄이 들면, 그 안에 벌거지가 괴고 해도 그 물을 먹는거라. 고물영 이젠 그 물을 다 먹어지니까 그걸 소제해 두고 새로 물길젠 맹월생도질레 가분 사이에 손님이 와서 “물 한그릇 주시오”하는 거라 이.

근디 물은 떨어졌단 말이여, 곧 신경 오지만은. 경행 없으니까 그때 주인 하르방이 (손님한테)곡주를 주랜해서. 그 손님 그대로 보내지 말고 술이라도 대접행 보내라고, 그때 부자들은 술을 집에서 빚어 먹었거든 이. 하니까 그 손님이 술 얻어먹고 돌아가서 닥머루(당시 저지리)엔 가니까 “물을 달라고 하니 술을 주더라”하고 얘기가 났지.

## 2. 변찰방 (1)

-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1차 조사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 제 보 자 : 김군칠(남·93세)
- 구연상황 : 여러번 찾은 집이라 설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를 없었으나 집을 공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소음이 있었고, 제보자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 있어 신빙성 문제가 야기될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찰방 얘기와 비슷한 내용도 있다.

변찰방이란 것은 무식했지 경해도 힘이 장사고 어거지꾼이랴지. 그 사람네가 그렇게 똤다고 허는거라. 변찰방이 어머니가 옛날 이제도 할망당이라고 있지 않으나. 어머니가 당에 가젠 생선 대가리도 굽고, 밥도 메를 치고 해신디 이 놈의 찰방이 문짝 들러먹어서. 경허난 어머니가 “이 노무 새끼, 할망을 위할라고 한 것을 다 먹었겠다. 허물이나 나서 죄나 지라”거 해서. 허니까, 아닌게 아니라 찰방 허벅지에 종기가 이만이 헌게 【검지 손가락 두 마디를 쥐며】 나가라. 품으니까 긴 쇠꼬챙이 가지고행 할망당에 갔어. 찰방이 “이 놈의 할망, 나를 죄주고 허물을 났으니까 이 고름을 먹으라”고 하면서 침으로 종기를 확 채놓고 할망당에 막 몽크래 부렸어. “이 놈의 할망, 나를 허물쥘 못 존디게 햄시니까 이 고름이나 먹으라”고. 해신디 오꼳 좋아분거라. 게난 변찰방은 할망당에도 아니 들쨌지(할망당도 소용없다).

### 3. 변찰방 (2)

변찰방의 형은 공부를 잘했지 이. 공부를 잘 하든 나라에 시험보래 갔어, 요새 고시보는 것처럼. 근디 아시는 어거지만 시니까, 공부를 안 했어. 행 시험보래 갈라고 허는디 인제는 성이 과거보래 간다니까 뒷 따라 갔거든 이. 찰방이 “나도 가겠소.”허니까, “글도 하나도 안 한 따 우가 가서 뭘 허겠다는거냐.”허니까, 아 정해도 구경강 보켄 뜨라가는 데, 먼저 간 놈들은 상시원한테 시험 불라고 마루에 쪽 앉았는디 막짱 사 들어간 것에, 찍새기 신영 강 선비들이 신 벗어놓은거 옆드레 【다 리를 좌우로 움직여가며】 싹싹 치워놓고 지기 신발을 가운데레 딱 올려놓 상시원한테 가서 “제주 아무가에 과거보러 오랐습니다”하고 절하 고서는 똥을 ‘박’졌어. 똥을 ‘박’하고 지가 꺼놓고서는 지 성한테 가서 허는 말이 “뭘 존존헌 것이 어른 앞에 와서 방귀는 왜 끼는냐?” 허니 까, 남은 것들은(선비들) 상전이 므스왕 아무말도 못했거든. 행 상서관 이 있다가 “이 자식들, 다 가라”고, “니들이 글을 공부했다고 허는 것 들이 놈똥에 엮어놔서, 너희들이 발명(發鳴)을 못하는 것들이 글은 잘해서 뭘 헐것이나”고 하면서, “변찰방을 쓰겠다”고, “지가 똥 꺼놓고 선 놈한테 씌우는 걸 보니, 너는 남자다.”고, 찰방벼슬을 줬지. 경행 더 러변 찰방이라고 했지.

### 4. 변찰방 (3)

지기네 아방이 죽었던 말이여. 변찰방네가 시 성제라. 저 고내봉 우 이 ‘여히혈’이라는데 있지, 여히. 여히라는 것이 사람 흘려오는 식답은 거. 여히혈에 산이 있지만은 신한이, 산 보래 가는 사람이 정시. 정시 지리(지관)가(신한과 정시는 산 자리를 보는 사람이라는 같은 의미인 듯 함) 이 놈들이 존디느냐, 마느냐... 거기 산을 써줘도 존디지 못할

테이니까 헛일이다(하고) 이 늑 새을 불라고 해서 제일 큰 아들보고 나를 업엉 그덜 올라가라고, 업엉 올라가거니 못 올라가거니... 버치니까... 놔뒀거든. 이늑의 하르방이 술술 내려오는거라 그 신작로 변을 조름으로, 다음채 들췌 아들이 업엉 올라가서 또 그디가니 버치는거라 노니(내려 놓으니), 다시 내려오는거라. 버금채 변찰방이 업엉 올라갈 통이라 “내가 업엉 올라가겠다”고 시째가 업엉 올라가당 또 버쳐... 그디가니까, (정시가)내려오켄 허난 (변찰방이)조동팍이 상통팍을 푹 잡앙 이 늑무 자숙 췌려 죽여볼췌다고, “우리 형님이 버청해도 하니 해주고, 이 늑무 정시 죽여볼췌다”고. (정시가) “아, 놓으라고... 내 산 봐주췌다고, 아들들 새을 불라고(문맥이 끊어짐) 너네 아방을 묻되, 죽은 변찰방 말만 들으라고, 이젠 무덤을 지탱한다”고. 이젠은 그덜 묻으니까 지형으론 말이여, 옛날이지(의미가 통하지 않음) 밤에는 아방이 오라서 말이여, 큰아들 집에 오라서 죽은 아방이, “너 자느냐?” (큰아들이) “예, 잡니다. 너 누구냐?” (죽은 아방이) “난 너 아바지다. 죽은 혼령이 오랴다.” “어째서 아바지 오십디가”허난, “나를 여우혈에 묻어서, 여우형체에 묻으니까 여우놈들이 나를 박박(손가락을 세우며 긁는 시늬를 하며)허고 못살게구니까, 나를 이묘해 달라... 다른데로 천이해 달라”하니, (큰아들이) “나만 해집니까, 아시들한테 고찌 아니흐영”하니 (죽은 아방 혼령이 말하길) “아시들한테 의논하되 둘째 아시한테는 의논하지만은 변찰방 셋째 아들한테는 의논하지 말라. 그늑 아니 듣는다고.” 개 둘째 아들한테가니까, (작은 아들이) “막둥이 동생도이신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젠 허당 버치니 아방 혼령이 오란 허니, “거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막녕이한테가서 아바지가 여쭙십서.” (바로 이야기가 이어지나 앞, 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음) 아바지가 오라서 막녕이한테 허는 말이 “꿈에 이묘를 해 달라고 하니 어쩔꼬?”하니 (변찰방이) “당신네만 아들이오? 나도 아들이니까, 우리집들에 보내십서 귀신을 보내시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아버지 혼령에게) “막녕이 아들한테가서 의논을

해여 합니다”하니, 이 놈 무 귀신이 나지 못해서 가보겠다는거라, 이무를 허젠 허영. (변찰방한테) “너한테도 온다.” 이 놈이(변찰방) 매를 하는데, ‘홍깃대’라는 옛날에 서답하는 그 놈 하나 좋은 매를 치려고 올베를 딱 지등에 묶어 두고, 아방 올 줄 알아서. (아버지 혼령이) “너, 죽은 놈 자느냐?” (변찰방이) “예. 누구니까?” “나 아버지다. 나를 여우혈에 묻어서 난 못 존디니까, 나를 이묘를 하라.” “거 아버지 영이면, 손이나 한번 내놉써. 먼저나보겠습니다.” (아버지 혼령이) 손을 주악이 내보니, 올베를 확 걸어맷영(실감이나 나는 듯 웃으면서 끈으로 무언가를 묶어 매는 시늬를 함) 도라맷영 도라매니 (아버지 혼령이) 여우로 변색이 되어서 홍시새 그놈을 막 패 죽였어. 성님네한테 가서, “아버지 영혼이 왔길래 패 죽여왔으니까, 가 보시라”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오랑보니, 여우가 죽어부니 (묘자리를) 지탱헌게지. 그때는 그대를 지탱을 해서(발음이 부정확해서 해석, 의미 판명이 안됨) 지금 그산이 있지. 고내봉에 변침이 좌산이 있주. 여우혈에 번가가 어찌냐면은 \*\*\*\*\* (청취 불가) 가정 참방 벼슬을 했어.

## 5. 논하르방

- 조사일자 : 1999년 8월 3일 6차 조사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 제 보 자 : 홍태수(남·70세), 명이동에서 살다가 현재 남동에 거주. 다리가 불편하여 멀리 나가지 못하고 소학교를 다녔으며 발음이 부정확함
- 구연상황 : 조사자들이 방문한 때에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잠겨있었고 2차 방문이었기 때문에 전날보다는 한결 친숙하게 대해 주셨다.

김칩인디, 요작이 얘기지. 헌 논하르방이라고 그랬어. 어디서 했냐면 저~화순, 거기에 가서 인제 앉앙보니 넓드락한 논이 있는디 물이 들어가질 못행\*\*\*\*\* (논하르방이) 몇 년을 살면서 그 하르방이 그 빌레를

캘라니까 빌레 우에 막 불 살라가지고 행그네 돌이 막 뜨거우면 거기 소주로 막 비와불면 닳아진다 했어. 소주를 돌 옷으래 비우면서 냇골을 트는디...경허다가도 버쳤어. 한 30m 거린다, 아예 빌레가 아니여. 옆으로 영 돌박아가면서,(손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그 주위로 돌 박는 시늉을 함) 물 돌려오는건디... 보민, 그 하르방 비석이 있대. 다음 손에는 제주 시장해난 김장진이가 옆에 크게 세우고 헨디. 이 하르방이 소송을 13번을 했어, 명월 양칩이 하르방하고. 양칩이 하르방이 눈에 물고를 텃어, 터 놓으니까 그 영감은 미안하댄 허영 논·밭 대지기 100평을 논하그방한테 줘버렸어, 오죽 억울 할 일이며, 다 되논건디... 소송을 13번 해도 지고... 할망은 겨울에 민영(의미 파악 안됨)싸가지고, 민영 팔아가지고 소송 얻고 이젠 13번해도 지니까 법에서가 미안하니까\*\*\*\*\*갈라주라고 했어. 그 논이 곡식이 안 되어. 이젠 그것도 귀신이 있댄. 하도 억울하니까, 귀신이 있어 농사가 안 되니까 이 마을에서 안되켤 허영 이 하르방 한번 제나 한번 지내보자고. 화순에서 3월에 제를 지냈어. 이젠 “이 우리 논·밭이 나를 잘 되게 해줍서.” 제사를 지냈어... 묘제처럼. 그때부터 농사가 잘 되거든. 아, 이젠 매년 해야 되켤 헨게... 논하르방이 되었어.

## 6. 초난밭

- 조사일자 : 1999년 8월 3일 4차 조사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 제 보 자 : 밝히기 꺼림(여·63). 저지리 본동에 살다 결혼 후 현재 성전동 거주. 제보자 집에 있는 밀감밭이 예전 초난밭이었음.
- 구연상황 : 조사자들을 반갑게 맞아주기는 했지만 이야기하기를 상당히 꺼려하여 다른 제보자들에 비해 실화를 유도하는 시간도 오래거리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초난밭”인 경우에는 예비조사 때와 본조사 때 내용이 달라 두 가지 모두 기재했다.

옛날에 소로 밭갈 때에 그 밭이 해도 같기 구지니까 거기서만 쟁기의 보섭을 아흙 개나 꺾어놔던 허여, 허난 “그 밭 해도 출허다, 초남도” 행 그 밭을 초남밭이랜 햅주께.(7월 14일 예비조사)

이디가 성전동이랜 이름짓기 전에 옛날에는 초남밭이 아니고, 천한밭이랜 했지. 옛날에 천한밭이랜, 무사 그런말 햅신고 허난 우리 과수원 심경으네 햅주만은, 옛날에 밭갈 때에, 농사지어 먹을 때에 밭갈당 보섭을 꺾어묵고, 또 갈당 꺾어먹고 허난 “아이고 초남도 경허난 초남밭.” 맨 처음에 (그 밭을 보고) 천함도, 요망스러운 밭이랜 행 경 7람 주께.(8월 3일 본조사)

## 7. 수동이 저지리에 속하게 된 이유

- 조사일시 : 1999년 8월 3일 4차 조사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 제 보 자 : 밝히기 꺼림(여·63세). 저지리 본동에 살다 결혼 후 현재 성전동 거주.
- 구연상황 : 유도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조사자들이 지루한 상태에서 언뜻 지나가는 이야기로 넘어가다가 여러번의 질문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동이 저지리보단 조수에 가깝지. 땡기는건 틀리지. 어땡산지 경했던..... 옛날에 득인가, 평인가 【저지악을 가리키며】 놀개가 끊어지난 (수동이 조수에 속하게 되면) 경허난 저지에 붙어실꺼랜. 경 안허민 조수에 붙어실꺼디.

## 8. 저지악(새오름)

- 조사일자 : 1999년 8월 3일 4차 조사

- 조사장소 : 미용실 앞 풍낭밭
- 제 보 자 : 홍태수(남·70세).
- 구연상황 :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제보자를 만났으나 발음이 부정확한 데다가 목소리도 작아 이야기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구연을 했기 때문에 도로변의 차소리와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로 소음이 상당히 심했다.

이것이 【저지악을 가리키며】 닭 형국이라 해서 글자 그대로 닭 ‘저’자에, 믈을 ‘지’자라. 여기 저지는 독이 알을 품어 앉았다 해서, 이것이 암탉…… 저기 암피도 있어 저기 가면 또 【명이동으로 뺀 저지악 끝을 가리키며】 이계오름있고. 이계오름하는 것이 독이 알 품어 깨어났다고. 그리고 저 【저지악의 맞은편 오름을 가리키며】 오름이 있어. 저거, 저게 무슨 형국이나하면 여기서는 그거 뭐 여나…… 【한참을 생각함】 매…… 큰 매 있잖아. 그거 형국인데, 저 늑의 오름이 이기 독을 언젠가는 알을 주워먹겐 노리고 있던 말이여. 저 오름에는 저렇게 소낭이 많아. 저 오름은 언제나 나무같은 것을 심지 않아야 한들이지. 서광에 있지. 저 오름에는 나무를 심지 말아야 한다.

## 9. 도체비 왓

- 조사일자 : 1999년 8월 3일 4차 조사
- 조사장소 : 미용실 앞 풍낭밭
- 제 보 자 : 홍태수(남·70세).
- 구연상황 : 이 장소에서 구연했던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소음 때문에 채록하고 녹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에 있어 어려움이 더욱 컸다.

나 눈엔 영 안보여. 한라산을 그렇게 밤중에 혼자 다니고 해도. 금악 거기에\*\*\*\*\*하나 있어. 거기서 언뜻 허민 비우른 이딘 오라. 요기서 부턴 사람들이 귀신이 보인덴. 나는 안 보이는데. 왔다갔다 파착파착하

고 불덩어리가 하나로 비쳤다, 열 개로 비쳤다 돌아다니다 숲 속에 있다가 돈방낭이랜 헨디 거기 있다. 그 이름들이 다 있어. 신난밭이여, 도체비 왓이여. 신난밭은 여기고, 도체비 왓은 거지 우리 밭인디 사람이 신경이 약하고 허는 사람한테 자꾸 비치는 생이라. 요기 사는 사람도… 살아시민 76센디, 한 10년 전에 【기침】 아, 집드레 가는디 비는 으실으실 오는디… 아, 불이 파착파착하면서 막 10m 앞에까지 온거라. 이 사람은 \*\*\*\*\* 7만히 앉아서 돌맹이 가정 돌맹이를 돌맹이를 막 부딪히니… 돌꿈냄새 할라고헐려니, 이놈이 간디 온디 어시난 \*\*\*\*\* 한참있당 정신 출렁 술도 흐김 깨고 허난. 아, 집에 와보난 뒷날엔 나 봐지난 “아이고, 저 사람네 밭지나당 내 죽을 뻔 했네. 도체비 나왕 사람 막 흘리젠 허난, 에…… 개도 술 먹어도 정신 바짝 츄령 돌로 막 돌 때리니까 그 놈의 도깨비 저쪽으로 누게네 밭드레 가불드래”. \*\*\*\*\*리 친구네 집에 가서 벌을 한통 지었어. 비가 그치니까 오는디, 한길로 와서민 될건디…… 옛날 목로길로 오당 보니까 \*\*\*\*\* 아이고, 난리치고 외고 막 허당 고만히 앉았어. 앉았으니 날이 불았어. 불양보난 \*\*\*\*\* 한번 죽을 뻔 했다고.

## 10. 차개동산

- 조사일자 : 1999년 8월 4일 6차 조사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 제 보 자 : 홍태수(남·70세).
- 구연상황 : 조사자들이 방문한 때에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잠겨있었고 2차 방문이어서 전날보다는 한결 친숙하게 대해 주셨다.

차씨는 원래가 이디 몇이 없었어. 저 여기 하나 있는디 3대가 있었는데… 에… 그 전에들은 쪽 독자들만 내려오다가 요즘은 이디 차씨가 잘 안되. 옛날에 그 동산이 우리가 알기로는 혼 300년이 넘는다, 그디

가, 그래서 그 차개동산 밑에 여기에 김씨가 있는데, 김해 김씨가 살았는데 종손이 내가 알기로는 9대가 살았어. 그 이가 살아시민 한 90이 나신디, 그이가 한 집터에서 9대를 살았어. 그 사람네가 살기 전에 차씨가 오라서 질 처음에 입주했던 모양이라. 경해서 이름 나기를 차씨가 와서 살아서 차개동산이라고 하는거지.

## 11. 용선달이

- 조사일자 : 1999년 8월 3일 4차 조사
- 조사장소 : 미용실 앞 풍남말에서
- 제 보 자 : 홍태수(남·70세).
- 구연상황 :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제보자를 만났으나 발음이 부정확한 데다가 목소리도 작아 이야기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도로변의 차 소리와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로 소음이 상당히 심했다.

용선달이 그디를 용달리, 용달리라고 했어(8월 4일 6차조사때 2차 방문을 하여 용선달리가 '용달리'라고 불리는 이유를 물으니 모른다고 했음). 이 오름(저지악) 뒤에, 수동. 이젠 그디 아무도 안 살아. 경해서 그디 살다가 다 떠나부런. 이 4·3사건 전에는 이었는디, 4·3사건 이후로는 소동 안 살아.

제일 처음에... 에... 저지에 이침이가 제일 먼저 들어온 모양이라. 그디 묘도 있고 헌거 보면, 거기 몇 세대가 살았는디. 경헌디 거기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물이 좋아서 살았거든. 그디 물이 좋아서 그래서 제일 처음 입주했는디, 거기서 조수로 갈라가 버리고 여기로 오고... 처음엔 여기 안 살았어. 저기 【한참 기억을 더듬음】 장근테, 장근테엔 헌디 그디가 그런달로 오랑 한 세대씩 산건디. 저 머종물게 거기 몇 사람씩 살고 이렇게 하다 차차 이기 온 거지.

- 조사자 : 정경숙(97), 김정돈(95), 김지철(97), 신지연(97), 강수경(97), 송영지(97), 문지은(97), 김명현(97), 진수임(98)

# 信 仰

차 례

1. 개관
2. 공인종교
3. 무속신앙
4. 마을신앙
5. 기타신앙

## 1. 개 관

저지리의 신앙에 대한 조사는 무속신앙, 공인종교, 마을신앙, 개인신앙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졌다. 이 중 조사팀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속신앙이었다. 저지 주민들은 공인종교보다는 무속신앙에 대해 친근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저지악 중턱에 있는 저지본향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조사팀은 저지본향외에 여드래당이나, 하르방당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자 했으나, 마땅한 제보자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세경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비디오로 채록할 수 있는 행운도 있었다. 저지리의 공인종교로는 법화종인 성불사와 원효종인 학림사, 그리고 기독교인 저청중앙교회가 있다. 무속신앙에 대한 조사가 비교적 충실하게 된 반면, 다른 분야에 대한 조사는 미흡했다. 4·3사건 이후에 사라진 포제의 경우 그 대강의 윤곽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인 신앙의 경우는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2. 공인종교

저지리의 공인종교로는 불교 범화종인 성불사와 원효종인 학림사가 있다. 기독교로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인 저청중앙교회가 있다. 공인종교는 무속신앙에 비해 그 호응도가 낮은 편이며,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 마을 노인들의 호응도는 매우 낮았다.

### 1) 성불사

성불사는 저지리 성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는 532-4번지이다. 1957년에 김철길 스님(법명 : 도열)과 신도들이 4·3과 한국 전쟁 후의 혼란기에 주민의 정서 순화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성불사를 창건하였다. 1957년 2월 15일 15평의 초가 건물을 건축하고 7월 7일 판포리 대승사로부터 소형 불상을 봉불받았다. 1965년 2월 15일 초가 건물을 슬레이트 건물로 개축하였으며, 1980년 5월 20일 본법당 20평을 신축하고 구 법당 15평을 객실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 1989년 1월 20일 종각 2층탑 7평을 건축하여 100관의 범종을 들여왔다. 신도회는 1965년에 조직되었고, 임원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간사, 고문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처음 성불사는 태고종이었으나 1962년 범화종이 되었다. 1967년 7월 15일 문교부로부터 등록허가 제34호로 인가 받았다. 성불사는 저지주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신도들을 위해 축원, 천도재등도 지내며 지정법회는 정월 7일, 15일, 2월 15일, 4월 8일, 7월 7일, 15일(백중) 10월 15일, 동짓날, 12월 8일(성도)날 열린다. 현재 주지스님은 도열스님이며 신도수는 약100여 세대에 이른다.

### 2) 학림사

원효종인 학림사는 1968년 11월 25일 강성직, 김신생, 고원길 등 세

사람에 의해 창건 되었으며 수은교 소속이었다가 1975년에 원효종으로 등록했다. 현 주지는 수연스님이며 신도수는 약 50~60명에 이른다.

(3) 저청중앙교회

저청 중앙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주소는 저지리 1522-7번지이다. 서울 영락교회와 제주 영락교회의 자금 지원 아래 1979년 3월 9일 설립되었다. 초대 목사는 부임 당시 전도사였던 김창주 목사님이며 현재는 전도사인 이복현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담당 목사는 노형 뱀엘 교회의 이성권 목사님이다. 신도수는 30여명의 달한다. 마을을 청소한다거나 무료 진료 등으로 활발한 전도를 하고 있다.

### 3. 민간신앙

본래 저지리에서는 마을제를 지내왔으나, 4·3사건 이후에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문원숙씨(남·73세)에 따르면 마을제는 농사가 모두 끝난 음력 7월에 지냈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제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아낼 수 없었다. 제보자 문원숙씨는 저지리 마을지를 만들었으며 학력 수준이 높았다. 포제를 할 당시 향불 피우는 일을 하면서 포제를 도왔다고 한다. 구연을 할 때 말을 하는 속도가 빨랐다.

#### 1) 포제

- (1) 명칭 : 포제.
- (2) 제신 : 알 수 없음.
- (3) 제일 : 정확한 제일은 알 수 없고, 농사가 끝난 7월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 (4) 제장 : 포갯단은 새오름 밑에 위치해 있는 밭 중간에 있다. 허릿당

과 위치가 가깝다. 소나무가 몇 그루 서있으며, 제단은 없어 졌다. 포켓단의 위치가 마을에 북쪽에 위치해 있고, 마을의 광경이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포제를 그 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제를 지내는 방향은 북쪽이었다.

(5) 제의 관리 : 유교식으로, 포제를 행하는데 쓰이는 비용은 집집마다 보리 한말씩 건어서 마련했다고 한다. 제관들은 향사에 모여 금줄을 치고 일주일 동안 합숙 생활을 했다. 제에 올리는 물은 현재 마을회관 뒤쪽에 있는 장왓굿이란 물통에서 나오는 물을 썼다. 포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람들은 장왓굿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6) 제물 : 제물은 '생뎛', 즉 돼지를 잡아서 통째로 올렸다고 한다.

## 2) 무속신앙-당신앙

저지에는 새오름 중턱에 위치한 저지본향, 수동에 위치한 여드레당과 하르방당이 있다. 이 중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저지본향으로, 주민들의 저지 본향에 대한 믿음은 매우 강하다. 그러나 여드레당과 하르방당은 그 명맥이 거의 끊긴 상태이다. 무속 신앙에 대한 제보는 수동의 변전부씨(남·60세), 저지본향 메인 심방인 고수녀씨(여·73세), 심방 김순흠씨(여·74세) 등으로부터 받았다. 이 중 김순흠씨로부터 세경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비디오와 녹음기로 채록할 수 있었다.

### (1) 저지본향

저지본향은 저지 주민들 사이에 보통 '할망당' 혹은 '허릿당'으로 불리고 있다. 거의 주민 대부분이 허릿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옛날부터 허릿당에 나무를 함부로 상하게 한 사람들은 큰 해를 입었다고 한다. 메인 심방 고수녀씨의 말에 의하면 정월 초하루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축원을 해야한다고

한다.

- ① 당명 : 저지본향, 당멸본향, 할망당, 허릿당, 일뤼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보통 할망당 혹은 허릿당으로 불리고 있다.
- ② 신명 : 매희 심방 고순여씨에 의하면 금악당 셋똥애기이다.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진성기 저, 민속원, 1991)에 실린 저지본향에 대한 본풀이에서는 정씨부인 큰똥애기, 정좌수 큰똥애기, 정좌수 뜨님애기, 정좌수 말뚝똥애기등으로 나오고 있다.
- ③ 제일 : 매월 음력 3일, 7일, 13일, 17일. 매희 심방 고순여씨에 의하면 23일 27일은 제를 지내지 않는다. '둘이 그물'기 때문이다. 동네에 사람이 죽거나 당에 가는 사람이 죽은 동물을 본 경우에도 '비리다'고 해서 가지 않는다.
- ④ 신체 : 신목(팽나무). 울타리 위에 팽나무가 우거져 있다.
- ⑤ 제물 : 특별히 금기시하는 음식은 없다. 메와 함께 돼지고기, 쇠고기 올린다. 제물을 올릴 때 한 사람에 한 상씩 12개 상까지 올릴 수 있다. 제물 '뜨든 것'은 당 한가운데 있는 궤에 던진다. 심방이 나오면서 그 궤문을 닫는다고 한다.
- ⑥ 성별 : 여
- ⑦ 직능 : 치병, 생산, 산육.
- ⑧ 당건조 형태 : 전답형, 신목형, 제단형, 동산형, 지전물색형.
- ⑨ 단골 : 저지리 주민 전체. 정월 초하루에는 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제주시, 일본 등 타지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⑩ 매희심방 계보 : 강씨(고순여씨 시어머니)—차옥길씨(고순여씨 시아버니)—고순여씨.
- ⑪ 당의 내력 : 고순여씨의 계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악 알아져? 금악이 이 할망다. 저디 이거 막 큰 당이주. 금악이 아방이라. 또 어명이 금악이라이. 이 할망은 큰똥은 어디간 처렐 몰라. 이것이 셋똥이라.(두번째) 당똥당이. 또 셋똥로 버금은 큰 똥

은 어디간 처렐 몰라, 하도 하노니깐이. 게난 셋똥로 헤어져그네 큰 똥은 그자 어디사 가신디사 큰똥 거느려도그네 그 알러랜 만똥 똥들이라. 경허난 셋똥만 주장허여그내 허여이 큰 똥은 어디사 강 죽음사 해신디사 그 옛날도 어떻사 해신디사 몰람디. 경허민 그자 그 알러랜 밋밋 알러랜 맹월도 큰 당이라. 아맹해도 맹월당이 큰 똥 닳아뵈여. 게민 그자 만똥 죽은 똥이여 셋똥이여 말쑤똥이여 그자 경해부러.

## ⑫ 축원

축원을 할 때 무구는 보통 방울을 이용한다. 북이나 장구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매인 심방 고순여씨가 당에서 하는 축원을 옮겨 적는다.

가.

올고 금년 나쁜 액년 할마님이 막아줍써 올고 금년 해우년 거느려 그녕, 열두 달이 문 열두달 나쁜 액년 막아줍써. 이 즈손들 땡기는 길마다. 아 흐술 뉘 헌 일도 닦아줍써. 요즘은 잘도 하거든. 만똥 거느려. 차에도 하당 옥날일 혼날일 막아줍써. 경고라그녕 그자 대충 고랑 말메. 그 사람이 원채 많이 가는 때문에 문똥 곧지 못허여. 대충허여 그녕. 경해동 이젠 자손들이 열 두 가지 각서춤 아홉가지 구회공생 할마님한티 지극정성을 오라수다. 경해영 이젠 애맹 싹 해영 올리거든. 어멍이엥 헌건 사름 연령이라이. 혼 집의 식구가 다섯이구 열이구 간에이 아무가이 상 받습읍서. 몇살 애기 상 받습읍서. 몇 살 상받읍서. 그자 경해영 싹하게 올려동. 이젠 소지를 술와, 소지는 석장이라이, 석장이, 석장을 쏘명 또 그대로 즈선빳디드레 마땅 거느려, 이 소지 올리거든네, 할마님 반앙으네, 이 즈손들 열두 돌이민 열두 돌 곳인 액년을 막아줍써. 경허영 이젠, 따시 딱해영 올려동으네, 이제 그 하간거 춤을 해간거, 곧는 말

이(심방이 곧는 말이라이) 한짓님한테 곧는 말이라이, 한짓님전 같  
다는 상이랑, 상께에도 궤문착, 중께에도 궤문착, 하께에도 궤못을  
들이레 가멍, 아 때반이랑으네 조홀러레 신당에 궁글이고 금당에  
궁줄이라.(?) 하건이든 많이많이 공개여 들입니다. 그것이 끝이라  
이제.

나.

멘은 갈라 한경멘, 저질 밋을, 나은 선설 할마님한테 지극정선정  
오라수다. 공선은 공석에다 가선은 가석외다, 이누역 서중낭, 서중  
공손 말씀 올립내다. (이젠 연령들에 들어가브러이, 자손들) 나은  
선설 할머님 받읍서, 올고 금년 나쁜 액년들이랑으네 할마님이 막  
아줍서, 차에도 뉘날일, 혼날일들 막아줍서.(경허른 자손들은 다 올  
려부러서이.) 올고 금년 열두덜 궤은 액년 막고, 머리에랑 동조술도  
풀려줍서 귀에도 올렸흔거 풀려줍서, 가심 조망 울꿀망에 지신님들  
풀려줍서, 목에랑 ㄱ린님들 풀려줍서, 서른정도 풀려줍서, 내려올  
때는 할마님 밧다 남은 상이라그네 웃데밭 철벤 잠식호영, 상께 궤  
문착, 중께에도 궤문착, 하께에도 궤문착호영, 밧다 남은 상이라그  
네 알데 반이랑 건어다가 저올러에 신당에 근줄이여 큰당에 근줄  
이여, 하근줄들 많이많이 공개하여 드립네다. 동드레, 서드레, 남드  
레, 북드레 나가는 칠성관장님네, 많이많이 공개하여 드립니다. (게  
른 끝이라.)

## (2) 하르방당

하르방당은 수동, 옛지명으로 용선달리에 있는 ‘신당왓’이라고 하는  
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신체는 커다란 팽나무로 한 쪽이 잘려나가  
있다. 다른 곳보다 약간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옆에는 물통이  
있다. 제보자인 변전부씨 말로는 그 물통의 물을 떠다가 치성을 들였  
다고 한다. 또한 제보자는 하르방당과 저지 할망당이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큰 신빙성은 없다. 제주도 무가 사전에는 용선다리본향(한경면 조수리)라고 해서 하르방당에 대한 당본풀이가 수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심방들이 와서 굿을 했으며 지금은 몇몇 주민들만 추석 때 쯤해서 찾는다. 마을지에서 제기된 불이나 낙천 도채비당과의 연관성을 제보자들에게 질문했으나 그런 관련성은 없다는 대답만 얻었다.

- ① 당명 : 용선달리 하르방당
- ② 신명 : 알 수 없음
- ③ 제일 : 음력 1일, 15일
- ④ 신체 : 신목
- ⑤ 제물 : 알 수 없음.
- ⑥ 성별 : 남
- ⑦ 직능 : 알 수 없음.
- ⑧ 당건조 형태 : 동산형, 신목형, 지전물색형
- ⑨ 단골 : 저지리 수동 주민
- ⑩ 매인 심방 계보 : 없음

### (3) 으드레당

으드레당 역시 수동에 위치하고 있다. 으드레당은 밭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옆에 큰 양돈사가 들어와 있다. 제보자는 으드레당에는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나무에 걸려 있는 지전과 물색으로 보아 최근에 사람이 다녀갔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제보자들에게 으드레당에 대해 물었으나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 ① 당명 : 으드레당
- ② 신명 : 알 수 없음.
- ③ 제일 : 8일, 18일, 28일.
- ④ 신체 : 신목
- ⑤ 제물 : 알 수 없음.
- ⑥ 성별 : 알 수 없음.

- ⑦ 직능 : 알 수 없음.
- ⑧ 당건조 형태 : 전답형, 신목형, 지전물색형, 동산형
- ⑨ 단골 : 저지리 수동 주민. 거의 찾는 사람이 없음.
- ⑩ 매인 심방 계보 : 없음.

(4) 낚들이

제보자인 심방 김순흠씨(여·74세)는 병을 앓다가 45세 때 심방의 길로 들어섰다. 특별히 기능을 전수 받지 않았다. 인간 문화재인 고택형씨에게 기능을 전수했다고 한다.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이 분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제보를 받았다. 두 번째 제보를 받을 때, <세경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채록할 수 있었다. 다음은 심방 김순흠씨가 낚들이에 대해 제보한 내용이다.

이건 혼부리고 낚들이는 건도 아마 낚들이라, 아마 낚들이라 하면 낚이 안오는 거. 계난 사람이 죽으면 혼 부르지? 그런 것도 불러야 돼. 그추록 불러야만 혼이 오고 낚이 오는 거지. 낚을 들이면은 사람이 줍짝해서 심장이 바락 할 때는 잡신이 붙으는 거여. 더러운 잡신이 들어와서 푸닥거리하는 법이고, 그것도 다 차례가 이서. 낚들이면 낚들고, 혼들이면은 녀세들이고, 낚세들여나면 매돌리고 매돌린다음 군줄 도리고 군줄 돌리면 잡신, 잡신 할 때엔, '잡신' 하명 푸닥거리 하는 거. 녀들고난 물은 먹이는 거여. 세 번 딱 먹여. 이 물은 물이 아니고 서럭들인 물입니다. 이 낚들이인 물입니다. 산낚들이인 물입니다. 경행 세 번 먹여. 경행 그물 들렁 산간메에 딱딱 두들르명 머리 끝에 들입씨. 맘구멍으로 들입씨. 가죽 넘어 살트레 들입씨. 심장드레 들입씨. 시번씩 경해 맥여. 해서 돈을 노면은 돈으로 낚들여 가슴 심장에 딱 호져.

(5) 칠성 크사

심방 김순흠씨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다. 김순흠씨에 의하면 저지 지

역에도 뱀신앙이 있는데 이 지역의 뱀은 '세경 농제 칠성뱀'으로 토산의 뱀신앙과는 다른 것이다. 입춘 초정월에 '즈손의 생기 좋은 날'을 받아서 칠성 크사를 한다. 칠성 크사를 할 때는 세경본과 칠성본을 묶어서 푼다. 김순흠씨로부터 이 세경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채록할 수 있었다. 청취 불능은 (?)로 나타내었다.

칠성 크시에 대한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자 : 세경 질의는 어떻 하는 거과?>

그것은 입춘 초정월 돌아오면은 자손의 좋은 날 생기 받아서 칠성 크사를 하루밤 지내는 거이여. 경 칠성 크사를 지내면 크사는 뿔의 주장이나 하면은 서경땅에 농사지어 먹는 본풀이. 예, 이제, 칠성, 칠성에 명복 빌어주는 칠성, 그것 풀이 풀라고 칠성 크사를 하지.

### <세경본풀이>

세경신중 마누라님, 상세경 연지 신령입네다. 중세경 문암 승 도령님, 하세경 자청나라 자청비네다. 세경 장남 정이 어신 정수님이 거으넬(?) 세경신중마누라님은 동경간서 팽나무 저피에 세경땅에 농사 농악 저오당 세경신중 마누라님 난산국에 귀한 본산국 대해립상 본산국 해건 난사국 대령 허립쌍 식유낙향 분리공 과강성 드레 올려줍네다. 세경신중마누라님 난산국이 어디메와 본산국이 어딴니까? 세경 아바님은 김막을 성강 세경어명은 나막을 성강 세경아바님은 김정나라 짐진국대감, 세경 어머니는 조경나라 조지국부인님아, 양두 부배간의 혼인 입장 모를 이삼십을 살면 부귀영화 허영 잘 살아도 자식이 없엄 홀로 금신 하는 지에 흐를날은 동개남은 (?) 금백당 상수절에 법당 (?) 대스소승님이 금시상에 권제삼문 받으레 십오세 스연승으로 떠난 뒤에 법당일꾼 소구문이 시주꾸니 소송님은 김정나라 짐진국대감님기 권재감

문 내려줍서. 소승은 절데레 비어옵네다. 일 나스지 김정나라 김진국 대감님은 대스야 스소야 원천강이나 ㄱ졌느냐 원창강도 스주역 ㄱ졌수다. 스주역은 ㄱ졌느냐 스주역도 ㄱ졌수다. 대스라도 원천강 스주야 갈라도 대스중이 계십니까. 김정나라 김진국 대감님이 말을 하제 해여가난 원천강 스주역을 내어놓아 우리 안주 구해가서 사주팔자 골려두영 골배삼문 반앙가라. 스승님은 원천강 스주역을 내어놓고 영역을 탈곡 허난 백성들을 내어놓고 소복한 술정을 내어놓앙 우리나라 백성들을 내어놓앙 스주팔자 해여보니 부귀영화가 잘 살아도 조식이 귀홀 듯 헉심네다. 김정나라 김진국 대감님이 말을 호젠 스스야 경호문 어평호영 즈속을 볼 수가 이십니까. 우리 절엔 영급도 좋습네다. 수덕도 좋습네드. (?) 현당도 떨어지고 현 절도 떨어지니 우리 절로 들어가 현당 수리, 현절 수리 허영 수중만당 (?) 아르조리 대감님이 말하대 스스중아 어평호영 출여 가느니? 대백미도 일천석, 소백미도 일천석 몰백미(?)도 일천동 강령미(?)도 일천동 천만근 매영으네 뒷 ㄱ든골랑 중중이 처안강 해영 현당, 현 절 수리호영 수륙만발 들업시민 아들 딸 있느니라. 은천냥을 받치민 여자 생불 제호고 은천냥을 받치민 남녀 생불 취할 수 있느니라. 인근 자손들 상배미를 받아들렁 몰명미도 천동 강령미도 일천동 대백미도 일천석 소백미도 일천석 바쳐 절당으로 들어간다. 절당으로 들어가난 큰 절 수리 호여간다. 현당 수리 호여들 달릴 들 들어가고 두 만당 들어간다. 연석더래 넘어가난 초적 나라 처서고 부인이 먼둥 동행이 승능을 드립데라. 어평행 호박 안간 찬간 걸로 먹어베시니. 물 먹어 시민 남자 생불을 체할 건디 여자 생불 체할 듯 하느니라. 굽에가니 집으로 돌아오라. 천당 배부른 먹더니 (?) 제물 얻어간다. 연석더래 넘어가난 먹던 밥도 아님네다. 먹던 장도 아님네다. 먹던 물도 아님네다. 먹던 밥도 아님네다. 땅에 걸린 남내들 물에 불린 남매들 본발에등 천물되어 보리밥을 골래어 조밥에는 새앙내가 나는구나. 새금새금 자살기도 먹고 들콤들콤 오이저도 먹고저라. 아주까리 천갈래도 먹고저라. 보리떠리 미납채도 먹고저라. 나풀나풀 (?) 미역채도 먹

고저라. 구슬불린(?) 콩노물채도 먹고저라. 싯은 멀근 고시리채도 먹고  
 절라. 기왕 일귀낸 (?) 넘어가니 하오 열둘 두달 사십네당. 중사찬 남  
 근 구닌 (?) 앞니망엔 햇님이고 뒷니망엔 달님이고 양단독지 독경생엔  
 몸심좁심 두둥금실 일월이 싫으은 여자 친군 차헌다. 아이야 공일꿈  
 여자생불이라도 아래로 눕지 말며 풀잎에도 쉬지 말며 키우는 것이 이  
 야기 일름성명 뫼이라고 지으리오. 즈칭호영 낳은 아기 즈칭비. 가련호  
 영 낳은 아기 가련비로 성명 삼기 좋습네다. (?) 어떨아기(?) 성명 삼  
 기는 즈칭비로 성명 삼기 지웁네다. 이 얘기는 혼 시설 혼달 석돌 일  
 곱 술에 건너가난 그날 저날 키우는게 열 다섯 십오세가 건너가니 즈  
 칭비가 느직덕 정하님?라 호는 말이 어떻헌단 너는 손발이 경 고와져  
 시니. 상전님아 상전님아 즈칭강 연못에 강 하루 삼시 연서답 호당보  
 민 손발 고와집네다. 즈칭비는 입은 의복을 벗어놓고 주천강에 연내못  
 에 연서답을 들어가 연서답을 호당보니 하늘 옥황 문국성 문도령은 글  
 공부 활공부호래 누리당 즈칭비 하도 얼굴이 천하일색 고우난 문국성  
 문도령은 저 여자강 한 번 말이나 곱아 봐시민 호는 것이 (?) 넘어 가  
 당 도령 애 먹으니 물이나 혼 그릇 떠줍서. 조칭비가 물을 땡 그릇에  
 물 떠놓 창 버드낭 이파릴 뜯어난 물을 주어가는구나. 문국성 문도령  
 은 아가씨 얼굴은 천하일색 곱긴 곱수다마는 몽니 나뻘네다. 어떻하영  
 몽니가 나뻘네까. 어떻해서 물러레 창버드낭 이파리 뜯어놓 물을 줍수  
 과. 아 도령님아 도령님아 한 일 알고 두 이 모르는 도령님아. 뭇 일을  
 행허젠 허민 목 낭 물을 먹으면 물체가 나민 약도 없는 법이고, 창버  
 드낭 아파리 트멍으로 물을 뻘랑 먹으면 병도 아니나는 법입네다. 물  
 체도 아니나는 법입네다. 도령님은 어드레 가는 길입네까. 나는 거문선  
 상 앞으로 글공부 활공부호래 가는 길입네다. 즈칭비가 호는 말이 경  
 호민 도령님아 우리 집 동생 혼개 있는거랑 글공부 활공부 ?치 혼디  
 드랑 베행 갑써. 어서 걸랑 경흡서. 즈칭비는 빨래전정 집으로 들어가  
 아방신디 들어가고 아바님아 아바님아 나도 강 글공부나 호영 오쿠다.  
 지집년이 남즈날서 예편 공부 호영 머리광 무시거니 일러가난 즈칭비

가 흐는 말이 우리 남자 동생시민 흐주마는 남동생도 없고 아방어명  
 죽으민 축지방 누게 빌영 쏘니까. 여자도 공부허민 축지방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스결랑 경허라. 어명신디도 각 소신한다. 어머님아  
 어머님아. 나도 거문선생 앞이강 글공부 참여를 흐여 보리다. 지집년이  
 남즈날서 여편 공부 흐영 무시거 흐염시니 흐영 만발 하눈구나. 즈청  
 비가 흐는 말이 어머님아 어머님아 우리 남동생이라도 시민 흐주마는  
 남동생도 없고 아바님 어머님 돌아가민 축지방 누게 빌영 쏘니까. 여  
 자라도 공부흐영 놔두민 축지방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서 결랑  
 가보거라. 즈청비는 즈청방에 들어가고 여성 의복 벗어두고 남즈방에  
 들어가곡 남복 찰령 주천강 연내못에 들어온다. 문곡성 문도령 흐는  
 말은 어떻흐난 오라방 보내켄 흐영 놔두난 꺾새가난 여자 같수다. 아  
 니우다. 흐 아방 섬기고 흐 어명 난 아기가 얼굴 아니 틀릴 수가 잇십  
 니까. 어서 결랑 그치 동행 흡시다. 가는 것이 일당 서당 황혼에 해가  
 두해 저가니 밤엔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 밤이는 밤연습을 흐랜 은대  
 양에 물 떠나다냥 즈청비영 문곡성 문도령은 중세 은동이에 물 떠나냥  
 즈음을 자 가는구나. 도련님아 도련님아 이 물 손아지민 글공부도 떨어  
 지고 활공부도 떨어집네다. 이 물 손아지지 못허게 흐결랑 밤연습을  
 흐영 갑시다. 이제 곧 문곡성 문도령은 그 물 쏟아지카부덴 즈을 못  
 자는구나. 즈청비는 흐잠을 자는구나. 뒷 옛날은 (?) 그 선심 앞으로  
 들어가 선심흐영 글공부도 삼년 흐여간다. 활공부도 삼년을 흐여가는  
 디 일성 선비 흐는 말이 선심님아 즈청비는 남즈랑 말앙 여즈가 됩니  
 다. 어떻해서 여자가 되느냐. 글공부도 일등이고 활공부도 일등인디 어  
 땡해서 여자가 되느냐. 경허건 너네들 흐를 날날은 삼베중이 입어동  
 브름 우터레 돌아사보민 남즈여즈 확인 할 수가 잇느니라. 흐를날은  
 일천 선비들이 삼베중이 입영 브름 우터레 돌아보난 동을 동을 흐게  
 단딱 남즈 팔애 건어두고 즈청비는 구쟁기 짜블래기애다 하무래(?) 돌  
 아매언 삼베중이 입영 브름 우터레 돌아서닌 물도새기 추록 동굴동굴  
 남즈 팔이 흐여간다. 아명해도 여즈주 남즈는 아니우다. 흐루게 삼베중

이 입영 브름 우터레 돌아설 적에도 남즈도 남즈로 보였주마는 아맹해도 여즈가 됩니다. 선싱하는 말이 경흐겐 더러 흐룻날랑 오줌을 재끼나 혼번 해여보라. 어둑을랑 경홉서, 흐룻날은 일천선비들이 오줌 누는 재끼를 흐여간다. 일천선비들은 오줌을 누는 것이 멀리 늙넛해도 아홉방축 배끼 못 데끼고, 즈청비는 대나무 통에다 하무네 대영 오줌을 재끼는데 열두 방축을 데겼습네다. 열두방축 데끼난 남즈팔이 흐엿당 글공부 활공부를 흐는디 흐룻날은 문곡성 문도령이 연봉하철 흐웁네다. 책보도 문딱 설러가고 연봉한착 설러가난 도련님아 도련님아 어덜가젠 햄수과, 나가 서수왕의 마저 떠나기 전에 장개가랜 편지 전신 오랍네다. 즈청비가 흐는 말이 올 때에도 ㄱ치 오고 갈때에도 ㄱ치 동행흐게. 어서 걸랑 경협서, ㄱ치 지어정 연봉한착 설렁 문곡성 문도령흐고 즈청비흐고 보당, 즈청비 흐는 말이 도련님아 도련님아 읍서게, 목욕이나 흐영가게 글공부 활공부 궂은 공부 연 삼년 해 가난 몸예 편들 안 묻습니까. 읍서게, 목욕이나 흐여가게, 어서 걸랑 경협서, 도령님 올라건 우알로 옷을 할딱 벗어동 알통에서 목욕홉서, 날랑 옷통에서 목욕흐쿠다. 어서 걸랑 경협서, 즈청비는 옷통만 벗영 목욕은 흐는등 마는등 흐영 물 뺏겼디 나온다. 문곡성 문도령은 솟봉(?) 이라고 우알로 할딱 벗어동 물러레 들어상 목욕을 흐는 것이 시간이 걸려간다. 즈청비는 동더레 돌아상 보난 춤버드낭 이파리가 번들번들 흐염시니 춤버드낭 이파리 툫앙 글 삼자를 짓는구나. 어리고도 무욕헌 문곡성 문도령아, 글공부 삼년 활공부도 삼년 연삼년을 남녀구별 모르는 문곡성 문도령아, 글 삼자를 물러레 동글동글 띄웠구나. 띄우난 문곡성 문도령은 목욕흐당 보난 난데어신 춤버드낭 이파리가 앞이 동글동글 떠시니 춤버드낭 이파리를 건정 봐려보난 즈청비 글씨로다. 즈청비 글씨는 즈청비 경허영 물러레 띄와동 의복입영 앞더레 분흐여 얼굴이 천하 일색 고우난 내분거 억울하니까 이제랑 즈름을 좇아강, 이제랑 즈청비는 여색이나 찾기 저어, 나오랑 즈청비 생각하는 것이 옷은 벗영 입젠흐난, 혼 가덜내에 양가달 들이쳐 가는구나. 아이고 도령님아 아맹 급흐고시고 옷이

나 차례로 입영갑서. 혼 가덜 내에 양 가덜 들이치른 옷을 입을 수가 십니까. 그 말 들영 옷 차례로 입영 조청비 뒤로 따라가는구나. 뒤를 따라가는다 조청비는 집으로 강 문 문간에 기대영 샅구나. 사 있당 보 난 문곡성 문도령은 들어 뜨랑 가시니. 도령님아 도령님아 오늘 나영 밤 연습을 하영가거건 우리집이 아방 고랑 몇 설난디 혼건 열 다섯 십 오세 전이랜 흡썸. 열다섯 십오세 우에랜 혼른 나영 혼방에 즈을 못잡 네다. 어서 걸랑 경흡서. 조청비는 아방방에 널려 들고 아바님 글공부 활공부 삼년 하엿수다. 어멍 방에 널려들고 어머님아 어머님아 나도 글공부 삼년 활공부 삼년 하엿수다. 설운 아기 여즈로 낮주만는 글공부 활공부해시난 우리 돌아강 축지방 쓰더라도 걱정없구나. 잘 하엿져. 일러가난 조청비가 혼는 말이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영 글공부 활공부 하영 혼던 도령님이 저 문 문간에 샅수다. 오늘 방이 쉬켄 가켄 햄수다. 몇 살난 아시니. 열 다섯 십오세 전이랜 햄수다. 느진 답장 아니 만혼고 보라. 느진 답장 아니민 나오란 도령님 몇 술이 됩니까. 나이 열 다섯 십오세 전이 됩니다. 열 다섯 십오세 전이랜 햄수다. 게건 조청비 방에 청하라. 경해나난 조청비는 아맹해도 여즈난 남즈영 혼방에서 즈 자민 어이하리. 아들 아이 하여드난 문곡성 문도령은 조청비 어느방에 간 줄 몰란 바깥에서 해매는 것이 이방저방 여즈 축항이 되어 가는구나. 이에 문곡성 문도령은 계수나무 달빛에 풀베룩 이래얼룩 저래얼룩 하여가난. (?) 조청비가 혼는 말이 귀신입네까. 문곡성 문도령이 혼는 말은 귀신이 어디 이십네까. 생인됩니다. 생인이 누게 됩니까. 하늘 옥황 문곡성 문도령이 되십네다. 이젠 문 열영 나 방더래 어서 읍서. 청하여 가는구나. 청하여 츠시름을 쉽네다. 이 시름을 쉽네다. 삼시름을 쉬어가난 이 밤 저 밤 여즈 축하한 해여가난 하늘 사름이라 하늘 옥황 더래 드르젠 해가난 조청비가 혼는 말이 도령님아 도령님아 본메본장 두영갑서. 본메본장 두어동 가리우다. 복썸 혼방울 내어 주멍. 내어 주멍 혼는 말이 이거 혼 방울 심거건 번성혼건 옥황더래 웨서곡 혼 두 방울 낭 심거건 인간들에 전혼곡 날 봐지카부덴 생각하더

라, 일러 두곡 문곡성 문도령 옥황더래 드릅네다. 옥황더래 드르니 즈  
 칭비는 토실낭실 흐방을 심건 만발하여도 문곡성 문도령은 소식조차  
 몽그는고. 두 방울 심건 만발 하여 인간들에 전하여도 소식조차 몽고  
 읍네다. 문보난 이 애 어른 구성하는 즈칭비는 심심하고 야심하니 아  
 바님이 어머니야 누무집에 장남들은 흐를날 낭만 흠빱 행 오는디 우리  
 집이 정이 어신 정수님이 그라도 낭이라고 쉼메지왕 내여놓나 몰 아홉  
 도 쉼메지왕 내여놓나 구쟁기 점뱅이 출려 간다. 황기 도치 출립네다.  
 쉼 아홉 말 아까 후젠 거느린 정이 어신 정수님이 신당 그지래 드령  
 놔두난 흐를날은 소식조차 안 오난 요새 그트면 기다리당 보난 아니  
 오라가난 정이 어신 정수님이 죽음 삶을 몰라간다. 이에 정이 어신 정  
 수님이 낭흐래간 동더래 벌은 남 서더래 쉼와 놓고 서더래 벌은 낭은  
 동더래 쉼와놓. 몰 아홉 쉼 아홉 메와 두윙 동더래 돌아누윙 혼 줌 자  
 고 서더래 돌아누윙 혼줌 자고 흐당 보난 쉼 아홉도 몰 출 굿영 소들  
 소들 죽어간다. 몰 아홉도 몰 출 굿영 소들소들 죽어간다. 죽으난 정이  
 어신 정수님이 으만 흐민 어떠허리 황기 도끼 둘러매영 서더래 들영  
 몰 아홉 쉼 아홉 맹틴 낭을 사랑사랑 어리난 몰 아홉도 노릇노릇 죽어  
 간다. 쉼 아홉도 노릇노릇 죽어간다. 이제 정이 어신 정수남인 질러둔  
 몇 개 낭을 견어다가 작박 그튼 손굽으로 쉼 아홉도 벗겨 놓고, 몰 아  
 홉도 벗겨놔 멩게낭 석불더래 혼점 그창 드리치고 두 점 그창 들어치  
 고 흐당보난 삼덕도 닥빨이광 선보상이 내방성이 닳은 머리광 작박 그  
 튼 손굽으로 복복 칫영 쉼 아홉도 몬 먹어 가는구나. 몰 아홉도 몬 먹  
 어가는구나. 이젠 여기 정이어신 정수남인 쉼 아홉 몰 아홉 다 죽영  
 대껴 먹고 하늘님 이제강 빌수가 어시니 쉼 아홉 벗겨 난 가족도 아홉  
 장 그불쳐여 놓고 몰 가족 아홉장 드물척 해영 완정 으당 올레통에 올  
 리 하나 풀작 풀작 놀암시난 우리 상전님 공누 것만 죽흐는디 저 올리  
 라도 맞춰 가건 상전님에강 드리주게. 쉼 아홉 몰 아홉 몬 죽여 먹고  
 어땡허리. 오당보니 올레통에 올리 한 쌍은 팔작 드라나불고 황기도끼  
 는 몰 아래 소를 그라 앉습네다. 정이 어신 정수남이 구쟁기 점뱅이

벗어두고 올레통에 들어간 도치라도 찾겐 동으로 들영 서로 나고 서로 들영 동으로 나오곡 호당 보난 황기 도치도 일어불고 물 밖것디 나오랑 보난 가족들은 이구십팔개 열 여덟장은 해변 사름들은 넘어가당 그 피기도 흘말한다. 비채 ㄱ튼 도둑놈 다 들러 가불고 구쟁기 잠뱅이 벗어 놔두난 으겨 쇠봉태라도 흘만한다. 피채 ㄱ튼 도둑놈은 만딱 들러 가부난 정이 어신 정수남인 옷이 어성 입을 것이 어섯구나. 동더래 배려 보난 개냥 이파기가 번들번들해시니 대냥 이파릴 틀어놓 어느 새깨 강알 싸놓고, 선보상이 내방석 닳은 머리광 서글 여덟 삼덕도 니빨이 광 허여근 집으로 들어가젠 하니 올레로 들어갈 수가 어선 뒷담에 올라강 보난 삼년 묵은 간장통에 주래기 씩왕 놔 뒤시난 저저 도둑놈이나 앉아신가 도둑이나 맞형 심억너 상전님에강 드러보져. 돌맹이 쥐영 팡 허게 맞추난 삼년 묵은 간장통에 파싸하게 벌러져 불고 주래기 있당이네 걸러집네다. 벌러지난 정하님은 장거리래 오랑보난 아이고 삼년묵은 간장통이 파싸 걸러져 불고 등에 뒤엔 주래기 쓴 도둑놈이 앉아 이십네다. 즈청비가 흐는 말이 이게 어땡한 말이고. 두 번째 날은 오랑 다시 강 보난 담 우염에 뒷 구석에 주쟁이 씩운 정이 어신 정수남이가 울러시 앉았구나. 아이고 이거 어땡 정이 어신 정수남이야 이 지경이 되여시니. 아이고 느진덕 정하남아 날 살려 달라. 정하남이 흐는 말이 느도 종이고 나도 종인걸 어땡허영 살릴 수가 잇것느냐. 이제 랑 느진덕 정하남은 즈청비 신디 오랑 상전남아 상전남아 도둑놈이 아니고 정이 어신 정수남이가 황기 도치도 없곡 구쟁기 잠뱅이 다 벗어 두곡 개냥 이파리로 강알 싹 뒷 구석에 주래기 썩 날고라 살려 드랜 흡니다. 이게 어땡한 말고. 이제는 즈청비가 오랑보난 그 지경이 되시난 정이 어신 정수남아 썩 아흠은 어드래 불고 몰 아흠은 어드래 불고 황기도친 어드래 불고 구쟁기 잠뱅이는 어드래 불었느냐. 패채 ㄱ튼 도둑놈한테 다 잃어부렸수다. 어땡호날 피채 ㄱ튼 도둑놈한테 다 잃어 불영 어디 가곡. 아이고 상전남아 그런게 아니우다. 하늘 옥황 문곡성 문도령이 바둑 장기 두는 거 구경호단 보난 구쟁기 잠뱅이 황기도치

새 아흙 몰 아흙 뱃겨냥 가족이영 만땀 뱃겨 가동 들러가 부러 십데  
 다. 이젠 즈청비는 그말 드렁 아이고 문곡성 문도령은 나도 가민 구경  
 할 수 잇겟느냐. 구경할 수 잇십네다. 경허민 어떻 흐영이네 그디 가젠  
 해민 어떻 흐여 가느니. 아이고 상전님아 그디 가젠 허민 점심도 다  
 출려놓고 모색을 다 갖춰야 그디 쫓아 가집네다. 어떻행 갖추앙 가느  
 니. 자 그디 가젠허민 상전님 먹을 점심이라그네 소금 닷 돼 낵 ㄱ를  
 도 버무리고 나 먹을 점심이라그네 ㄱ를 닷 돼 낵 소금이랑 놓는 듯  
 해그네 버무리곡 경행 점심흐곡 아방 그딘 가젠허민 상전님 먹을 점심  
 이라그네 소금 닷돼낵 흐그들랑으네 ㄱ루도 닷돼낵 버무리고, 나 먹을  
 점심이랑 ㄱ를 닷돼 흐글랑 소금이랑 놓는 듯 마는 듯 흐여그네 버무  
 리고 경행 점심흐곡 이제 아방 톨앙 출립에도 벗어두고 어멍 톨앙 말  
 미에도 거느리고 경흐영 물을 탕 가야 흡니다. 아이고게 그것 사 못  
 흐느냐 출려간다. 이제는 새아방 톨은 출립에도 버려두고 어멍 톨은  
 말미에 췌 흡자기 거느린다. 이제 경 거느리난 정이 어신 정수남이 흐  
 는 말이 상전님아 상전님아 물은 타젠 흐민 물머리 코스를 지나사 흡  
 니다. 어떻 물머리 코스를 흐느니 문전더래 상 놔건 듯 머리 흐나 놓  
 곡 소주 흐평 놓곡 몰대강이에 물머리 쓰건 미녀석 자이영(?) 졸라매  
 건 물머리 수건해야 합니다. 즈청비가 이제랑 소주 한병 도깨 듯머리  
 흐나 놓고 문전더래 낵 물머리 코스를 허여간다. 물머리 코스를 흐니  
 정이 어신 정수남인 술 흐잔 비왕 몰 귀래 소록기 비우나 물은 마리  
 닥닥 터난 아이고 상전님아 몰 그만 먹켄 햐수다. 경허건 몰 먹당 남  
 은건 느가 먹느니라 너가 먹어불라. 작박 ㄱ튼 손콧으로 듯 대강이 벽  
 벽심영 술 흐 팽허고 정이 어신 정수남이가 문땀 먹어 가는 구나. 물  
 은 타젠허난 물안정 쓰곱더래 구쟁맛 닥살내영 몰 우터레 톨 올려낵  
 즈청비가 이제 물을 타젠허난 등맹이게 구쟁잇 닥살 낵 타난 몰 등맹  
 이 우터레 타난 물은 와들랭이 들러키난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물  
 새 물이라 상전님 못 탑니다. 나가탕 숙지우건 탕 그릅서. 구쟁잇 닥살  
 숙지허게 정이 어신 정수남인 빨래두고 어멍 톨은 말미에랑 말리망석

곧잡네다. 즈청비는 즈기 현 말에 기죽어영 그 뒤를 돛젼허난 버치고  
 발은 물퐁실나게 버물고 정이 어신 정수남아 몰 그래 부리라 나도 흐  
 끄 탕 가켜 정이 어신 정수남인 몰 안장더래 놀리멍 구쟁잇 닥살 딱허  
 게 물어 똥 내리난 몰은 타젠허난 와들락허게 들러키난 아이고 상전님  
 몰 숙지몰날 멀엇수다. 나 탕 숙지우건 탕 그릅서. 어서 걸랑 경허라.  
 정이 어신 정수남인 타젠허난 구쟁잇 닥살 썩 허게 빼여두고 몰을 타  
 건 만리만석 건너 가는구나. 즈청비는 배고프고 시장허영 걸을 수도  
 어섯구나. 발은 저총구슬 나게 버무리고 아이고 으눔아 될 수가 어성  
 죽을 때를 만났구나. 으눔을 달래사 혈근구나. 야 정이 어신 정수남아  
 그래 몰도 쉬고 몰 부리고 몰도 출 밍고, 오라 우리고 정심이나 먹영  
 가게. 어서 걸랑 경홉서. 상전님아 상전님아 상전님이랑 웃질래 앉앙  
 먹읍서. 종 광 굴이 혼길에서 먹어 가민 넘어가는 사름들 부어 영 홉  
 니다. 날라그네 질레 아장 정심을 흐리우다. 어서 걸랑 경허라. 이제는  
 즈청비는 웃질더래 아장 정심을 먹는 것이 혼술을 딱 떠 먹으난 애가  
 캉캉 몰라 가는구나. 소금 닻똥 ㄱ를 닻똥 놓 버무리노니 먹을 수가  
 이십네까. 정이 어신 정수남이 출려논 농마는 덕 흐영 정심을 흐난 순  
 작만씩 담뿔만씩 그차멍 고막고막 먹어간다. 즈청비는 정이 어신 정수  
 남이 고라 정이 어신 정수남 느 점심 이래 가져오라 나 흐끔 먹켜. 아  
 이고 이거 어평흔 말입니까. 한지님 먹당나 먹당 걸 한지님 먹는 말이  
 어디네 싯수과. 한지님 먹단건 종이 먹꼭 종이 먹단 건 개가 먹는 법  
 입네다. 경허건 나 정심 만딱 너 먹으라. 영허건 한지님 먹는 정심은  
 낮도 출레 산부 정심은 사부삼아 오막오막 다 먹어 가는구나. 상전님  
 아 상전님아 이젠 정심도 먹꼭 몰도 쉬고 해시매 이제랑 상전님이 탕  
 ㄱ릅서. 구쟁이 닭앙 속웁에 탁 꺾여두고 이제는 즈청비 몰안장 우터  
 레 올려놓 몰 둥글래 심영 ㄱ딱ㄱ딱 이끌어 가는구나. 소금 닻똥 놓 머  
 우린 정심을 혼술가락 먹으니 에도 칸칸 모르꼭 물이 바삭바삭 매몰랑  
 죽어질 정도가 되는구나. 즈청비는 몰안장 위에서 가당보니 물이 봐지  
 난, 오라 정이 어신 정수남아 우리 물 먹영가게. 상전님아 그 물 저 물

못 먹습네다. 어떻허영 먹느니. 산천초복 느린 물이랑 못 먹는 법입네다. 오라 으물 먹영 가게. 그 물은 거리 굴랑 느린 물이라 개발 중신 손발 씻영 못내 먹는 물입네다. 오라 우리 으물이나 먹영가게. 그것은 설 대구 느린 물 이거사 일저거 못니에(?) 궁녀시녀 손발 씻어 못 먹는 물입네다. 오라 으물이나 우리 먹영가게. 그건 벨 두께로 느린 물과 일서건 못 먹습네다. 에도 캉캉 몰라가고 가당보니 춤 버드냥 이파리 차랑차랑한 물이 만에 건드랑 했구나. 오라 우리 이 물이라고 먹영가게. 상전님아 이 물은 먹젠허민 예가 성 먹어사 험네다. 어떻허영 먹느니. 이 물은 먹젠허민 상전님도 우알로 옷을 할닥 벗어두꼭 나도 우알로 옷을 할딱허게 벗영 나가 먹젠해도 상전님이나 즈름으로 상 졸래서건 심어사 먹꼭 녹 먹젠허여도 상전님이 나 조래서건 즈름으로 상 심어사 먹어야 흐는 물입네다. 으눔 허는 말 아니 들으민 죽을 지경이 닥쳐지니 어서 걸랑 경허라. 상전님아 나먹는 빵 먹읍서. 정이어신 정수남인 우알로 옷을 할딱하게 벗어두고 물더래 하울 혼질 었더지명 상전님이랑 나 뒤에 왕 졸래서건 심읍서. 이제는 은꺄튼 손으로 정이어신 정수남이 즈름 어산 건 풀감을 폭허게 심어간다. 정이어신 정수남인 서로서로 기분이 좋는구나. 즈청비는 흐는 말이 정이어신 정수남아 물 고만 먹으라. 죽어지켜. 에 말랑 죽어지켜. 어서 걸랑 경험서. 상전님도 우알로 옷을 할딱 벗입서. 우알로 옷을 할딱 벗이 난 즈총비 옷 벗으난 춤 버드냥 우터래 옷을 만딱 걸쳐 가는구나. 물러래 었더지 난 작박꺄튼 수경 풀맹지 수경 풀러래 폭허게 잡아 심어 가는구나. 아이고 물 고만 돈 물 먹었져. 정이어신 정수남아 졸래서건 내불라 물 바것테 나가네. 이젠 물 굴메 즈청비 옷 춤버드냥 우터래 걸청 내부난 물굴메로 허울허울허울 해가난 상전님아 상전님아 저 물러래 바래 붓싸. 저것이 중기산에 중기북이영 매화산에 매화북이영 저 우피땅 하늘 옥황 문곡성 문도령 바둑 장캐 두는 게 저겁네다. 아이고 으눔한티 속 아졌구나. 죽을 때를 만났구나. 나 오랑 어떻허영 본고장을 돌아가리 상전님아 이제랑 물 고만 먹읍서. 이젠 물 다 먹여졌수다. 나오랑 정이

어신 정수남아 나 옷 드라. 옷 느료와 드라. 못 주쿠다. 나 말들으켄  
 호민 옷을 주쿠다. 니 말 듣당 이딘디 말라 아이 들으멍 나말 느가 어  
 이 들을 수가 잇것느냐. 옷 드라. 옷을 입으당 옷 입어 가난 정이 어신  
 정수남이가 즈청비 강 입을 맞추젠 해가난 아이고 이저 어평흔 일이  
 가. 종 광 하지님이 입을 맞춰가든 하늘이 바래면 하늘이 배락을 떨어  
 질 듯 허니 오라 느영 나영 오늘 밤일 굴 호영 가커건 오라 움막이나  
 지성 밤이 속히앵 가게 어서 걸랑 경홉서. 정이 어신 정수남인 동더레  
 버든 가진 서터레 휘야놓고 서터레 벌은 가진 동더레 휘야 낡 움막을  
 지성 가는구나. 움막을 반을 지서가난 이젠 즈청비가 흐는 말이 날라  
 건 지붕 위래강 돌 봐지는 ㄱ냥 해 봐지는 ㄱ냥 별 봐지는 ㄱ냥 하늘  
 봐지는 ㄱ냥 다 막으라. 날랑 안에서 막으켜 어서 걸랑 경홉서. 밤 새  
 낭 지붕에 올라건 막아가민 즈청비는 아이고 일로도 돌 봐점져 올로도  
 별 봐점져 호명 혼 ㄱ냥 막으민 두 ㄱ냥 시 ㄱ냥씩 빼여 불멍 시간을  
 냉겨 가느구나. 이제 밤이 생 싯당 보난 날이 새여 서산 닭은 고깔 들  
 러 땅 크나비 울어간다. 지왕 닭은 놀깔 들러 쌍 새날개 울어간다. 지  
 왕 닭은 출릴 들러 여기 야기 울어간다. 날이 새여가니 정이 어신 정  
 수남인 봄에 눈은 부릅뜨고 삼각불을 거실로왕 즈청비를 죽일 대로 호  
 여 가는구나. 정이 어신 정수남아 나머지 종다리만 호여가민 니 머리  
 에 뇌들 안케시냐. 나도 머리에 케였느니라 서른 으넝 함목도는 뇌빠  
 디 허우달씩 허멍 즈차매멍 ㄱ튼 느물 때 허올라 질러 벌겨 갑니다.  
 허당 견당 거동보난 배 몰래가 ㄱ튼 듯 윗통 견영 보난 흙몰래가 ㄱ튼  
 듯 호당 견당 거동 보난 내 몰래가 ㄱ튼 듯 윗통 견영보난 흙 모래개  
 ㄱ튼 듯 큰 뇌는 더럽고 추접호여 잡지 못호난 군사 잡아 불고 ㄱ랑뇌  
 시는 오독독이 죽여가난 정이 어신 정수남이 슝스름 줄앙가난 즈청  
 비광 입 맞추젠 해가난 즈청비가 흐는 말이 정이 어신 정수남아 나광  
 입맞추는 거 보단 나 늑는 머리 말이. 강보민 꿀단지가 이시매 꿀단지  
 래 독을 쓰든 더군다나 돌아진다. 가심 더래 손 서리 불삭 덜 더해가  
 난 아이고 나 가심 몬지그는 것보단 낭원을 물 뜨래가민 연자이시니

그거 만지민 더군다나 좋아진다. 너는 독독하게 죽여가난 정이 어신 정수남이 스랑스랑스랑 무정 눈에 즈이 들어 가는구나. 무정에 즈 들 당도 은 ㄱ튼 강알더래 작박ㄱ튼 손 쇠시랑 닳은 손을 슬픏슬픏 혀여 가난 즈청비는 안검거친 저 츠래더래 아즈명 니를 독독 두드려 가난 한전니를 흐는구나. 즈청비는 이제 이노무 자석을 죽이지 않으면 나가 죽어질 듯 하니 장고칼을 내어 놓고 정이 어신 정수남이 느단 컷등으로 우알 컷등ㄱ지 장고칼 꺾상 죽여 가는구나. 죽여두고 이제건 아방 어멍 튼영 말미매라 말미망석 건너가는구나.

그런 것이 아닙네다. 산중을 오당 보난 오만가지 주색이 발에 채고 보니 느랑 갈 빗내가 아니날 수 이십네까. 요여 요 아가 요 여성아 그 러말고 너 탕농으는 물 속올더래 무지력 총각 놈이 물 속올러래 심영 모람시니. 옥초옥초 경허난 삼시번을 이고가라. 옥초 경 삼시번을 둘러 치명 어멍 아방 신디 들어오난 야 정이 어신 정수남인 어디래 부른다. 그런 것이 아닙네다. 찬조당 보난 오만가지 총생이 발달에 채고 보니 누랑 날아가십네다. 이럴 수 이십네까. 으여 으 아바이 으성아. 그래 너 말고 너 산 너머 남똥글래 우지거 총강 내민 물 푹 올래 심영오랍 시니. 오축오축 영이나 삼아니 유가단 오축 오른 삼십원을 둘러치명 어멍 아방신디 들엄시난. 야 정이 어신 정수남이는 어디 부러시니. 정 실 머리 어시나 지베 돌아오십네다. 이 놈 몸거난 놈 남도 날씩. 경흐 난 가련혀. 경흐난 즈청비 남도 날씩. 흐루 부를 심복 큰 카 쉼 홑 말 홑 그늘에 나동구나. 똥앞이 흐영보니 아바님아 종이 아까웁네까. 애기가 아까웁네까. 애기가 아깝주만은 좀처럼 만만하게 부서지느냐. 정수 남인 깨어오란 흐여가난 즈청비가 흐는 말이 정이 어신 정수남이 장남 이 흐는 일은 나가 다 흐영 우십네다. 흐룻날은 풀이 쇠신 아홉 말은 가라죽 ㄱ초오란 쉼 아홉도 죽영 가단 물 아홉도 죽영 가단 흐는 것이, 예, 즈청비는 곧드래 만드래 힘이 들었구나. 이 놈 몸고 년아 그거 보라. 멜망으레 심으랭 누게 굴아니. 방울방울 쇠오라. 행시작 적구나. 구설수가 즈청비는 사방드래 굴리나고 어멍드래 시심난다. 이땅 이젠

돈딱 주성으넨 어명드레 시심나고 굴리나난 나도 가는구나 이~. 아방 어명 눈바끄레 나 간다. 중충원당은 들어간다. 들어간 뜰엄시난 물질래 잣단 할망은 어평허니. 고운 얼굴광 귀래 울도 뜨느냐. 그런 것이 아넝네다. 나는 아방더레 굴리나고 어명 시심나난 나오랏습니다. 일름은 뭐이냐. 가령에 난 애기 가령비, 즈청에 난 애기 즈청비가 됩니다. 경허진 오라지건 나영강 수양딸로 삼양 살게. 어명 흐걸랑 경협서. 수양딸로 들어간다. 수양딸로 들어가난 수양 어명은 하늘 옥황 운로성 문도령 장개 가젠 흐난 홍색얼룩 공단으로 차령온다. 차려온다. 아이고 어머님야. 나도 좀 송단 비단 잡으쿠다. 이건 시심 나민 아니되고 굴리나만 아이 된다. 어평헨 이유로 공단 비단이파. 하늘 옥황 문곡성 문도령 소소해기 뜰래기 장가 가젠 흐난 공단이며 비단이며 들어가난 즈청비는 들썩 지꺼전, 어평허영 수양 어명 어신 트멍에나 나가 참 비단 끝댕이 공단 끝댕이 즈청비 입어지난 시원은 해전. 수양어명 놀래간 트멍에는 공단필에 올라간 공단도 저어간다. 비단필에 올라간 비단도 뽕딱 저어 걸랑 비단 안 끝댕이에는 즈청비 이름을 섬병한 거이로구나. 즈청비가 수양 어명 오란 보난 어평흐난 개끄리 비어시니. 공단도 뭐칩습니다. 비단도 뭐칩습니다. 서른 나이에 나 수양달 혈만 흐다. 집에서 집관리나 잘해영 뵈시민 나 부옥황에 나 혼죽서 행오켜. 경 헤그랑 경협서. 흐서랑 감시민 비단 끝댕이에 공단 끝댕이에 즈청비 이름이 쓰여정 이시난 문곡성 문도령이 흐는 말이 누게 찬 공단이우파. 우리 집이 수양딸이 찬 공단비단입네다. 일름이 뿔입데가. 일름은 즈청미 가련허여 나난 가련비로다. 아방은 누게고 어명은 누게엔 홉데가. 아방은 진득나라 진득 대감님, 어명은 조정나라 저정곡부인이랜 홉데다. 경해민 할머니가 좋은 쌀 짚어정 갑서. 용태동 부령동 갑서. 용태 부려동 어서 경흐그랑 경협서. 좋은 쌀 맥여두고 맥여두고 할망은 인간 치국성에 뿌려진다. 치국성에 돌아강 수양딸 고랑 허는 말이 하늘 옥황 문곡성 문도령헌티 좋은 쌀 맥여동 와신다. 일 보리 착약은 이밤 저방야 자축하 곤딕허니 선실 후퇴니 그때랑은 부임받고 허령헨 고랑 나두

난, 고랜 날은 이밤 저밤 야전축을 곳냥허니 옥황의 문도령은 쯤칭비는 뽕 무똥에 돌빛에 풀매에 어뚝어뚝허여 보인다. 어뚝어뚝허여 보여가난 쯤칭비가 흐는 말이 귀신입네다. 생인입네까. 문국성 문도령이 흐는 말이 귀신이 어디이십네까. 하늘 옥황 문국성 문도령입네다. 경허근 창궂냥으로 상 손가락이나 내어봅서. 창궂냥으로 상 손가락 내와지난 쯤칭비는 비농어샤 상촌고락 꺾어지난 피가 불끈 나난 문국성 문도령은 구정하고 놀란 놀핀에 날 뛰멍 옥황더래 올라간다. 이에 새영 날이 불가 오는구나. 수양 어멍 오란 보난 간밤에 소식이란 있더냐. 소식이 십네다. 문국성 문도령이랜 흐멍 창문 고냥으로 상손가락 내봅센 흐영 내왕 보난 바농으로 상득지를 꼭 찢르난 피가 불끈나난 구정하고 소정하고 놀란 나타나난 옥황더래 돌아납데다. 아이고 수양어멍 이런 멩근년아 정허난 골리나고 어멍눈에 시심이 나구나. 눈 밖에 나는구나. 경허난 가련허, 가련허난 가련비. 경허영 나오난 경허여 산디 쯤칭비로 성명을 지어났구나. 눈밖이 나는구나. 이젠 수양어멍 눈밖에 나난. 쯤칭비는 나 팔자가 나 굴러가 이만밖에 아이 되는구나. 대응되는 꿀 받아드령 머리에 삭발해여두고 흰되저은 되를 두어두고 혼일곱자 연줄 때에 무게는 배파 염주 염질 두게 걸어두고 먹을 물 충천히 행 권재 받으랜 멩겨본다. 야 하늘 옥황에서 삼궁녀가 박새기들 들으멍 인간에 내려오난 울어가는구나. 쯤칭비가 흐는 말이 너네는 어찌허니 비래올듯 우느냐. 그런게 아납네다. 문국성 문도령이 식매빵으로 다 죽어가난 인간 치국성에 내려강 쯤칭비가 먹는 물을 떠오랜 허여 오난, 쯤칭이 먹는물 모릅네다. 쯤칭비가 흐는 말이 너네들 경허근 쯤칭이 먹는물 혼그릇들 떠 주건 오주룩하게 산간이란 너룩하게 혹타고 혹가지랑 나벌리라. 어서 걸랑 경홉서. 쯤칭비가 흐는 말이 혼 그릇씩 떠주난 흐는 말이 삼궁녀들은 지꺼정 오두룩하게 선가지를 탕 옥황더래 들어온다. 쯤칭비는 육가지를 타시니 으드레 기어들 중 모르난 문국성 문도령이 신디 들어가난 소금물에 들어간 권재삼을 해줍서. 권재삼을 내주난 느집 녀청어민 곤재를 허전오란. 개선님아 소선님아 이번 것은 혼방울을

떨어지민 땀도 떨어지고, 두 방울 떨어지민 복도 떨어집네다. 혼방울이  
 라도 떨어지게 흐지마랑 이제랑 중헌쪽 출려두고 권서 삼으랜 문국성  
 문도령이나 만나보저. 대응되는 꿀 받아드령 머리에 삭발 해여두고 높  
 이 들어 소르룩하게 받읍서. 권재삼을 내여주난 즈청비는 오름전 굽터  
 진 것을 받으난 문딱 새연 문딱해져 가는구나. 문딱 해져 가는구나. 즈  
 청비는 놀래 짓눈러 너럴 노랴 부르멍 방울방울 권재 죽당 누윳 줄을  
 수가 어시니, 모인 구덩 한 구덩 묻어두고 즈청비는 중조나무 상가지  
 를 도른다. 돌라진 놀래지른 놀래 부르느구나. 즈청비가 우는 얼굴에  
 비일비일 매일 정승 혼은일 철업인 복귀기안과. 태두 나우 밝혀 듣고  
 인간이 즈청님아, 못한 일을 혼 얼굴이구나. 우는매 매일 장성 거느령,  
 철업인 복귀인도 하늘 옥황이 문국성 문도령만을 못한 일을 혼 얼굴을  
 원허려 진놀랭 저른 놀랭 불러가니 문국성 문도령은 안에 병풍치고 앉  
 앗당 어뜩어뜩 좋은 노래소리가 나고 즈청비 이름도 걸리고 문국성 문  
 도령 이름도 걸려져 가니. 이제는 글리멍 금막아래 본다. 중지는 금막  
 아래 나오란 정저남 우트레 바래 보난 얼굴을 천하일색 고와도 머리는  
 중바락 상바락 허엿구나. 이제는 문국성 문도령이 허는 말이 아방은  
 어딴메고 어멍은 어디 됩니까. 아방은 진국나라 진국대감이고 어멍은  
 조정나라 조정부인입니다. 가련하게 나여 가련비, 온기 딸기 외톨나기  
 입네다. 정저남은 낭알러래 내려온다. 내려오당 문국성 문도령은 창문  
 을 열고 병풍드래 즈청비를 곱져 가는구나. 국진이 국전기 흐곤 어든  
 적당 아니믄 상을 출령 문국성 문도령이신디 오랑 주민, 재반만 견영  
 아이머영 흐난디. 밥도 다 먹고 세수물 무석 껍껍하게 떠가는구나. 승  
 능물도 하영 오란 오민 반쫘 부엌먹고 흐난, 느낌 독청이 흐는 말이  
 어멍흐민 흐루 유충되서민 중년 땡겍성계. 중년사 미침신디 문국성 문  
 도령은 밥도 나쁜 먹고 세수물도 껍껍 떠가는구나. 승능물도 다 먹업  
 수다. 이게 어멍헨 말이고. 문국성 아방어멍은 오라간다. 야 어멍헨 일  
 인고. 아이 아무일도 아니우다. 방 치워낭 아방업어 집에 들어가난 즈  
 청비가 여산을 흐여 가는구나. 도령님아 도련님아 아방한티강 아방어

명 한티강 문질해봅서. 문엇을 문질해봅니까. 메느리도 아주 새 메느리가  
 좋습니까 목은 메느리가 좋습니까. 목은 메느리보단 새 메느리가  
 좋긴 좋아도 목은 메느리가 좋아. 날 생각하고 옷은 새옷이 좋습니까.  
 목은 옷이 좋습니까. 새옷이 좋긴 해도 목은 옷이 권태문영 뽀뽀해민  
 좀 더 좋아져. 장도 새장이 좋습니까. 목은 장이 좋습니까. 새장이 돌  
 긴 돌아도 목은 장은 깊은 맛이 나주. 날 생각을랑 느 생각. 이제 문국  
 성 문도령은 아방한티강 츄청비가 곱는데로 아방어멍 한티강 선실을  
 해는구나. 아방어머님아 새메느리가 좋습니까 목은 메느리가 좋습니까.  
 새 메느리가 좋긴 좋아도 목은 메느리가 뽀뽀해민 좋다. 경흐란 그때랑  
 날 생각허랜 험데다. 어머님아 아바님아 옷도 새옷이 좋습니까. 목은  
 옷이 좋습네까. 새옷은 새맛이 좋아도 목은 옷은 뽀뽀해민 권태문영 좋  
 나. 이에 새장이 돕니까. 목은 장이 돕네까. 새장이 돌긴 돌아도 목은  
 장이 지픈 맛이 더 좋아진다. 아이고, 경해민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서  
 성 안해민 장가 아니 가쿠다. 아이고 요놈아, 요놈 한티 속아졌구나.  
 이제는 어멍아방 오라간 문초를 내여 오라간다. 야 어느거 목은 메느  
 리고. 목은 메느리 내어노라. 병풍을 확 걷은 걸 보난, 얼굴은 천아 일  
 석 머리는 중바래기 상바래기 도구나. 야 이거 어떻한 일고. 나 메느라  
 가 적거해거든 오늘 이 시간에 강망헌 머리 끝 독전 오랑, 이에 츄청  
 비는 주충답전 눈물을 비오거듯 해우듯 둥에란 연주들어 아사간다. 울  
 며불며 뉘우칭 곱던 것도 날 감아오던 가망헌 머리털 오늘 이 날에 고  
 쳐줍서. 하늘 사랑이난 그 시간에 머리가 가울가울 머리가 올라 가는  
 구나. 경흐민 남의 눈이가 적허거든 쉼덴작 칼선더레 바라오꼭 바라보  
 당 안에는 백한등불 피워당 쉼덴작 칼선더레 바리오꼭 바리오민 남의  
 눈이가 하연흐다. 안에는 백한등불 피워놓고 칼선더레 눈 쉬인 내작  
 들크랭이 가간다. 이 방을 이카도 바라도 바라오고 흐민 남이 눈이 적  
 흐다. 츄청비는 츄청 ㄱ튼 문 먹은 병 ㄱ튼 (?) 울멍 칼산더레 우터레  
 올라 갑네다. 맹천 ㄱ튼 하느님아 나 오는 시간에 배탄 (?) 팔자려니  
 나 살려줍서. 맹천 ㄱ튼 하느님아 칼산더레 올라강 칼산더레 막 바라

오고 막 바라오당 칼산더레고 팔 두치가 흥끔 이어지난 피가 벨겔허난 시어멍 시아방 모르게 허젠 시넷가로 꼭 숨어드난 치마더레 피가 벨겔 쏟아집네다. 나 메느리가 착하고 착실하다만은 시넷가 더레 피가 발라져시니 즈청비가 하는 말이 아바님아 어머님아 여자는 열 다섯 십오세가 넘으면 월경법을 만연혀 구실법을 만연합니다. 그 법으로 즈청비가 나온 법으로 십오세가 넘으면 인간 자손덜토 몸에가 구실법입네다. 월경법은 만연하니 서른 낳는 법에 착신 허당 공단 편도 물려준다. 비단 편도 물려주멍 건데 간데 지영오랑 건데 간데 지영오랑 공단 비단 그런 (?) 모당 지어가는구나. 남의 눈에 착실하다. 공단비단 다 에끼고 문국성 문도령과 살림은 살아잡네다. 살림을 살아가난 문국성 문도령 친구들은 즈청비가 하도 얼굴 해지난 문국성 문도령을 죽여동그냉 즈청비를 이제란 얻어가켄 허룻날은 야 회죽여 빼시는거구나. (?) 회 보랜 해가난 즈청비는 미리 아랑 야 도령님 남의 낭군님아 오늘 회보랜 가건 약주들 주건 하 먹지 마랑 읍서. 약주민 그 시간에 집에 돌아오 질 못하니 약주를 마시지 맘서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가슴 팍에 숨기 멩 먹는 듯 먹는 듯 가슴팍에 비와동 약주 주건 먹지 마랑 돌아읍서. 허당보단 깐피 부리난 약주 주난 노시 아이 먹는구나. 안 먹어가난 요놈한테 이제는 속아 주었구나. 약주를 아니 먹었구나 노시 약주를 못 맥여가니 벽벽굶은 할망 질러래 처박쳐 저시난 할만한테 그 약주를 가져당 주멍, 문국성 문도령 몰탕 내려오민 이 약주 맥여줍서. 할마님, 어서 걸랑 경첩서. 약주가 할망한테 주언 듯 허난 문국성 문도령은 몰을 타고 사랑사랑 내려와가난, 사랑사랑 내여와가난 할망이 흐는 말이 벽벽 굶은 할망이 도령님아 도령님아 이 약주 한 번 먹영 잡쎄. 아이고 아이됩니다. 약주라도 먹영갑서 나 걸은 할망이야 무신 경우가 이십니까. 약주라 혼잔 먹영갑서. 요런 할망나 죽국쟁허멍 몰 안장 약주 한잔을 먹으난 몰 안장 한티 문국성 문도령 몰 안장 헌티 도르당 털어 전 죽어간다. 몰은이에겐 귀장난만 씩위동 사랑사랑 집에오랑 대천 한강에 오랑 말 딱딱치멍 소리를 내여가는구나. 즈청비는 공산더레 공산

사란 직호랜. 아이고 나님아 약주 먹엇구나. 죽엇구나. 여 물은 기출잡  
 앙 물가는디 물은 기촌집앙 (?) 여는 기출잡아 말가는디 가다 가는 질  
 의 절반이 가는구나. 질고당처에 문국성 문도령이 떨어져짓구나. 나의 낭  
 군님 도령님아 도령님아 약주먹지 마랑 읍새 해나두난 죽엇구나. 이젠  
 산 인체로 뭇안장 우터레 올려난 집으로 들어간 마루위에 오라전 늑정  
 이불 뒤아지로 덕권 부엉이를 심영 이불 속에 담으난 코소리 추룩 크  
 룩크룩 호여가난 곱단더레 올라간 곱단 처단 보난 문국성 문도령 친구  
 들은 으눔 죽여졌전 이것을 아랑 오랏구나. 문국성 문도령 어디 가수  
 과. 저 마루에서 콧소리 내멍 줌 잠수다. 으눔 나쁜 놈이요. 그런 약주  
 를 맥여당 죽엇구나. 돌아가는구나. 돌로오당 돌아가는구나. 이에 콧소  
 리안 하름하름 호여간다. 이에 동승 어멍 문국성 문도령은 죽영 마루  
 방에 잇져. 부엉이 심어당 산 추룩 햐져. 아이고 진자로 죽엇구나. 다  
 시 오라시난 즈청비가 호는 말이 도령님한테 물어봅서. 문국성 문도령  
 친구한테 점심이나 혼 그릇 호영갑서. 오랑 안젠 호난 방식이나 꼬랑  
 안집서. 누개방성을 친하반려햐 냐듭서. 아 방식을 꼬랑안젠허난 누개  
 방식을 짱각짱각 앓지 못호난 즈청비는 때 끝멍 소리로 탁탁해여가난  
 털어청 끌앙 앓읍생 내여간다. 우쇠꼴을 내왕 자빠기 해영 들어간다.  
 아이고 호나씩 짱각짱각 씹지 못해가는구나. 조배기 혼그릇도 못 먹는  
 도령님이 문국성 문도령 죽여동 날 데령가젠 홉데가. 도령님아 도령님  
 아 아이고 그때기는 우석우섭 아이도니 이 도령님아. 다 물러서 가는  
 구나. 문국성 아방어멍 신디강 아이고 암 찰리들영 먹은 며느리 혜방  
 벌서 서방 죽영 소들해영 가는구나. 아이고 어멍헨 말인고. 오랑 보난  
 아들은 이불 귀로 덮여두고 크룩크룩해가난 이놈이 새끼 줌잔젠 견영  
 보난 부영새가 속에 들영 부영부영 햐꾸나. 이에 문국성 문도령 아방  
 어멍은 암개 들영난 날 잡아 먹잔 햐꾸나. 삼벌싼 먹은 년아, 일러가니  
 즈청비는 이만하민 어멍호리. 아바님아 어머님아 나 떨쩍 나 죽영 그  
 만 뻑기 아니버신디 어이햐니까. 어멍아방덜토 죽은 애기가 살아오랏.  
 버려두고 아방어멍 다고 간다. 나가부난 즈청비는 이제 어멍해민 좋으

리. 이제 남의 낭군님을 살릴 여산을 해야되지. 앉으면 안도리로구나. 물을 탄 서천 꽃밭이 가당보난 아이들이 부엌새들 잡아 서너미 앉아 이래 밀력저래 밀력 해가난. 야, 젊은 애기들아 그 부엌새 나신디 풀아 달라. 풀아달라. 어서 걸랑 경 햅서. 스천 꽃밭에 들어가명 죽은 부엌새 짝 어대 데끼는구나. 데껴두고 소금물에 강 물소리가 사랑사랑 난 곡간방이 흐는 말이 큰 똥 애기야 저만적 나고 보라 어떻게 인간 소리가 나는구나. 강 보니 아무것도 아이 보입네다. 셋똥래기 나도 보난 셋똥래기 나고보나 아무 거소 아이 보입네다. 마줄래기 나고보나 마를래기 나고보니 인간이 어십네다. 인간의 도령이 심근 끝에 이십네다. 인간의 도령이건 몰탕 보래 몰부리고 저 올래 몰 메어전 출 베어난 즈청비가 흐는말이 우리 말은 양반이 타는 말이라 출 아이 먹습네다. 똥을 먹느니. 상군이 탕 다니는 말은 삼군마장 삼두자를 먹습네다. 이제는 몰팡 꼬리 몰고기 은동이 몰습네다. 은보시 출 주어동 은동이 몰습네다. 은재동에 물을 메어동 은보시 출주고 삼군마장 삼두자 인간의 것도 그어두영 큰 구들 지들 죽은 그들 지들 캐오고, 소박님 삼군마장은 지래 기렁 쌀도 캐오고 술도 피우랭 떠밀립니다. 어떻게여 된 인간 도령이 스촌 꽃밭에. 스촌 아깍된 이말을 해가난 즈청비가 흐는 말이 그렇게 아답네다. 부엌새를 하나 살려 쓸런더래 닳더니만은 스촌 끝밭에 부엌새를 이신 듯 해영 인제 찾으로 왔습니다. 경어근 우리 스촌 꽃밭에 부엌새 몇 망을 이섭시니. 경 아랑 우리 스촌 꽃밭이 오는 방 살아동 부엌새를 잡아달라. 어서 걸랑 경햅서. 이에 즈청비는 몰탕 풀아래 말로 딱 하게 내려당 배통만 배뿌지 내여놓 누웠더니 안은 밝아가단 부엌새가 부엌부엌 소리나난 손바닥으로 착 하게 후려가난 부엌새가 떨어집네다. 떨어지난 해동허게 붉은난 곡관건이 나오란 간방이 기척이나 잇더냐. 예. 나만 흔적 곳간더래 강 햅서. 쌀 한 되를 던졌더니 만은 부엌새가 진듯습니다. 강 보난 여엿허게 부엌새가 죽어졌구나. 이젠 곡관건이 흐는 일이 경 말하거든 우리 말이 똥아이 강 좋은 쌀 맥여똥 조천 끝밭이 감시해달라. 어서 걸랑 경햅서. 이젠 즈청이 스천밭

에 곡관건 말쑥 똥애기광 좋은 쌀 맥여똥 조천 꽃밭이 감시해달라. 어서 걸랑 경흡서. 이젠 즈청이 스천밭에 곡관건 말쑥 똥애기광 좋은 쌀 맥여간다. 연 삼년을 살아도 마슴이 짝이니 남자민 만져 보기라도 흐 주마는 몬딱 여자난 감이 장난도 아니 해가난 이젠 곡관건의 딸이 해는 말이 아바님아 아바님아 인간 도령덜이 도고높은 사위를 해수다. 어쩐 높은 사위를 했느냐. 연 삼년을 살아도 남자 구별법이 없습니다. 거 어땡헐 말이니. 곡관간이 오랑 문들엉 가난 즈청비가 흐는 말이 우리 인간에도 아방어명 죽언 삼년전에는 부배간이 허락이 없는 법입네다. 아이고 양반집이 딸이로구나. 경 허근 인간 애기 돌아강 아방어명 삼년 냉겨두고 오랑, 먼적번 애기랑 살려두고 스천 꽃밭 삼세 달라. 어서 걸랑 경흡서. 해여 내 두고. 우제 가자나해영 우리 삼년 살앙 울꺼 난 어땡해 질지 모르니 꽃밭이나 구경해 가쿠다. 어서 걸랑 경흐라. 꽃밭에 구경강 요건 무신 꽃이우젠 흐민, 그것은 깨우를 꽃이 괜허민, 몰루루 솔짜 탕 콩국, 요건 무신 꽃이과 허면, 그건 깨우를 꽃이여, 요거는 솔루루 꽃이여, 여거는 심무를 꽃이여, 요거는 말 고를 꽃이여. 일러가난 몰루루 솔짜솔짜 탄 손 더레 숨어 갑니다. 즈청비가 오젠 해가난 곡관간이 흐는 말이 도령님아 도령님아 봄에 본짝이나 두영 갑새. 얼러지와져 왓당 얼러저지영 흐짜 딱 비워전 갓당 흐짜이랑 여기 낫두고 흐짜이랑 나아져강 나 상년 냉겨똥 오라근 나꺼오랑 마추민 맞아지는 법입네다. 스천 꽃밭 흐어나고 간다. 이게 문국성 문도령 (?) 죽은 시체에강 때 오를 꽃이여 피우를 꽃이여 소를꽃이여 말를꽃이영다 오장육부 간간부우에 가을 제철에 난 거민 남의 낭군님아 살아남서. 죽신들 산더래 보내니 아이고 좃내미 지워졌구나 올래 깨니었구나. 살림을 살아간다. 이제는 시어명 시아방 고랑 흐는 말이, 아바님아 어머니아 아들 살려 놔시메 마듯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손으로 자식 난 똥 해난 살림 살라. 말태보니 이제는 살림을 살당도 즈청비가 궁금해여 궁금해난 놈이 봉헌밥 먹으면 목도 걸리고 등도 실리난 경해당 공이라도 값양오젠 문국성 문도령고라 흐는말이 스천 꽃밭에강 좋은 쌀

먹영 꽃 타당 남의 낭군님 살려시메 나신디랑 선부럼 살건 그디랑 그  
 부럼 살건 행 공 같아동 읍서. 경흐민 얼굴 아이같된 어멍허리. 같된  
 아이버민 어멍허리. 인간에 보람 상년 냉기전 흐난 밤에는 촘신 찬바  
 람 촌번 맞고, 낮에도 찬바람 촌번 맞으난 전번 걸은 얼굴이실 리가  
 이십네까. 삼년 살앙 그 보름동안 공 갇앙 돌아읍서. 이제 문국성 문도  
 령은 말을 탕 사랑사랑 스천 꽃밭에 들어간다. 들어간 곡관이 흐는  
 말이 야 사위가 오는 듯 하다. 야 큰 똥애기 데령오라. 아무도 어수다.  
 셋똥애기강 보람 아무 보매 불상 어십네다. 모르는 도령입네다. 곡관간  
 이 흐는 말이 어찌 문도령이 스촌 꽃밭까지 도착을 흐였느냐. 어떤 도  
 령이나. 나는 문국성 문도령입네다. 어멍행 오라난 사위가 앉았던 흐  
 난. 아바님아 아이고 아바님아 혼일 믈을 아바님아. 어멍아방 죽어그냉  
 삼년 냉기젠 흐난 밤에는 천실 천번 맞고, 낮에는 찬바람 천번 맞겐흐  
 난 전에 그 눈썹매가 이십네까. 아이고 그거 읍은 말이구나. 이제는 좋  
 은 쌀 맥여 말쩍 문국성 문도령 남의 여자난 살림살이 네여간다. 살림  
 살이 흐여 가는구나. 남여 죽일 껍도 싫고 살림살이 흐여간 인간의  
 즈청네는 하도 인간이 심심흐곡 야심흐니 선보름 후보름 살고 오랜 해  
 당보난 남자는 사랑이 흐나있고, 들은 없는 모양이구나. 가민가 무심해  
 게 돌아오지 앓는구나. 편지를 모셔놓고 제비신디 편지를 부쳐놓고 스  
 천 꽃밭에 편지 부쳐강 문국성 문도령 아침 새벽에 무똥에 물 떠나냥  
 세수해가거든 저 예편 저껏디 팽이선 스천 꽃밭에 보내난, 무똥에 물  
 떠당난 문도령 세수해 가젠 해간 무똥에 물 떠당난 두룩 두루치난  
 편질 깡 보난 즈청비로구나. 문도령은 가민가신 무심흐영 인간의 즈청  
 비는 잊어볼고 지만 살당보난 즈청비가 편지 가시난 얼을 소목황 남지  
 기 그만 허연 어떠허리 갓다올로구나. 옷도 거꿀로 입어간다. 물 안장  
 도 거꿀로 지와간다. 말인도 거꿀로 씌워간다. 이데 즈청비 오건 인간  
 강 오쿠엔 흐영 물을 탕 인간들에 사랑사랑 오라가니 즈청비는 올명기  
 치매을 산매들 꽃장독에 툫 동갓당 이제 문국성 문도령 올 시간이 되  
 가난 그 네모난 치매을 허리에 띠허건 문간에 기대어 사는구나. 문국

성 문도령 오는 걸 보란, 몰 안장도 거꿀로 지우고 말인도 거꿀로 씌워가난 조청비 흐는 말이 나는 오죽흐나 미안하다 몰 안장도 거꿀로 지우고 말인도 거꿀로 씌워오리. 조꼬띠 오라간 말을 흐주 어떻흐리 도망가젠 흐영가난 돌아나젠 흐영가난 문국성 문도령은 아이고 잘못해 지구랜 치매 심영 잡아매기난 삼년 묶은 꽃 창독에 동가나난 올밭마다 터름터름 놀아당 문딱 지워져 가는구나. 경흐진 조청비는 남음으로 간 신허젠 실끝마다 올밭마다 장납끝 술질 굽섬 장납으로 할 일 굽섬에 흐여두고 조청비 옥황더레 돌음네다. 옥황더레 돌라 조청비는 열들 스냥 길타당 인간 치국서에 내려온다. 치국성에 내려오랑 이제랑 정이어신 정수남이 죽어난디난 보져. 보장을 품에 품어낭 댕기당 보져. 정수남이 죽어난디 강 보란 베가 삼 허게 돛아났구나. 퍼렇게. 남이 낭군 사귀헛터정 댕기당 정수남이도 살려놓고 연시철에난 살려 정이 어신 정수남아 좀 너무 잡져 일어나라. 날 확확하게 세 번을 후리난 정이 어신 정수남이 승부삼이 매버돌은 서른 여덟 삼복동이 니 빠진 광 허우 돛싸흐명 일어나 가는구나. 일어나 정이 어신 정수남인 살려놓고 열두 수안 꽃을 타당 살려동 아방어명신디 죽은 것 돌아당 애끼젠 이젠 살려 놓고 행 아방어명신디 가는구나. 일어나 정이 어신 정수남인 살려놓고 열두 수안 꽃을 타당 살려동 아방어명 신디 죽은 것 독아당 애끼젠 이젠 살려 놓고 행 아방어명신디 가는구나. 오당보란 베 고프고 시장흐니 아홉 베 아홉 장납이 농서 어디 가시날 야 정이 어신 정수남아 처갓집 왔건 점심이나 들여동 우리 정 일육이나 해영가게. 정이 어신 정수남이가 들어강 우리 넘어가든 손님들인디 배고프고 시장흐면 적을 수가 없으난 점심이나 흐영 오랏건 흐끔줍서 우리 아홉베 아홉 장납 먹을 것도 없댄 부용 만발 흐는구나. 조청비가 흐는 말이 유갈때랑 오늘 이디 엔간이 새랑은 고앵이 진득 줍서. 베 뽕삽이 설듬 설점 줍서. 몽거라건 (?) 좀 더 부실여 허실이여 보심탐 구만 부리 시경듭서. 흐여 두고 넘어 오자말자 몰은 회들은 소맹이 갓 궁둥이 들르 명 와들랑 와들랑 들래서 가난 배뽕상 살랑살랑 부러집네다. 아홉 베,

아흙 장남 광남 안했젠 쥐부난 아예 베에 아예 가심이여 뭇태한테 주  
어 간다. 아이고 목심이라도 살려도라. 목심은 살릴수가 잇습니까. 삭  
은 가락 배똥에 질렁 우에 일곱 번 놓앗당 일곱 번 두루민 재체에 집  
니다. 이에 그에부러 뒤에강 베아픈 광삼이 진행 배똥 토록을 구겹입  
네다. 오단 보난 두 늙은이가 ㄱ자 농사하는 디가 셤구나. 아이구 으  
빳디나 흐끔 강 빌어오라. 우리 요기나 행가계. 강, 우리 넘어가던 선  
인들인디 정심이나 할망하르방 나오라 거정 흐끔 줍서. 쉬지 안행 몰  
령 가쿠다. 아이고 먹어질티 말티 저 빳디강 보민게, 먹어질티 마티,시  
경 먹어가랜. 가난 밥당 오랑 차게 범벅 해놔당 우알차게 거려당 되웁.  
작흐건 차마이 먹으랜 흔게, 귀신들이난 허울허울 문딱 먹는 것 닳아  
도 몰 닳으난 흐끔도 아이 먹엉 은감만 흐엿구나. 아이고 고맙습네다.  
이 빳디 얼마나 내와 줍네까. 아이고 얼매명 말명. 이 빳디 그저 농사  
흐곤 그즈. 우리 두 늙은이가 그즈, 동그랗게 질고 가고 난적 불구난적  
실고 같것만 내스와줍서. 어서 걸랑 경홉서. 골갱이 농사를 해여다가,  
흔 마지기 상올건디, 두 마지기 상올건디, 두 마지기 사올건디, 시겨줍  
서. 이판이란 천객이라 여름 오람져 여름 오람져. 명근 시린내도 없저.  
(?) 자채청을 재쳐놓서. 늙기라도 누여사건 물망 입층 대충흐고 관운  
덜을 흐여 사건 집전 애기 대충흐고, 배농사랑 흐여사건 (?) 대충흐고,  
보리 농사 흐여가건 (?) 대충흐영 삼월까지 시켜줍서, 정월ㄱ지, 한월  
ㄱ지 시겨줍서. ㄱ라두고 나가부난 그 굴가 농사 흔 할망 둘은 즈손내  
꺼지 부기영화 시겨십네다. 시겨언, 정이 어신 정수남이 도랑, 이제는  
즈청비는 아방어멍신디 들어강 므음에 정든 종 살령 으라시매 나타남  
서. 아이 아방어멍 흐는 말이 이런 뭇근년아, 야, 너 손으로 죽이고 너  
손으로 살린 종 아맹이나 흐영가라. 본채만채 흐여가난, 즈청비는 이  
젠, 서경장남, 정이 어신 정수남이 슬려내왕, (?) 서경 (?) 시겨수다.  
(?) 여름 농스, 여름도 설려내영 서경가난, 정이 어신 정수남이, 서경신  
중 마누라님, 이제는 농스는 서경 열두 스만국이 타 아단, (?) 시경, 인  
간이 백성들 모두 농스 농홉 슬려내어두고, 늦은 므물시건 느물 안 으

라졌구나. 아. 이제는 즈청비는 칠월이라 열나흘 날, 하양 밧디로 들어가 므랑알로 걸어들엉, 백중극소 호영, 옥황더래 또 올랑, 옥황에강 물갱이 느물식 느물식 슬려호여 늦은 느물 농사 호여네 십네다. 서경신중 마누라님 삼세경은 (?), 중세경은(?) 도령님, 하세경은 즈청나라 즈청비, 서경장남 정이 어신 정수남이 호여 들엉. 서경신중 마누라님 난산국 해수다, 본산국 해수다, 시주낙향, 불리공, 과광성을 해여수다.

### <칠성본풀이>

칠성한집 마누라님, 난산국 어디면 본산국이 어딤네까. 시유낙향 불리공이 어딤네까. 칠성아지 마누라님 난산국 귀진(?) 본산국더래 절러립서. 본산국건 난산국더래 절러립서. 칠성아지 마누라님 난산국더래 우들고 좌돌아 갑니다. 칠성한집 마누라님, 난산국이 어디며 본산국이 어딤니까. 칠한집 마누라님, 아방본 장씨나라 장설룡, 어명본 송씨 나라 송설룡 입네다. 장설룡과 송설룡이 부배간이 혼인 입장 먹은 부귀영화 영 잘 살아정. 자식이 없어, 혼배시를 아십니다. (?) 분제삼으 호롤 날은 스서중이 받으래 지우송에 너립니다. 스서중이 장설룡과 송설룡 하는건 하루만에 스루병 스서 은절여부 연다버저(?) 삼을런 해줍서. 장설룡이 사군문에 나고 가고 스서중아 원천각을 허증마냥 원천각은 호점수다. 호저그난 호저그난 호저여벽을 호저수다. 잘살아보오. 원천각 호저대여 것도. 대서가 됩니까. 경호건 우리 부배간이 혼인 먹은 이삼십을 살아도 자식이 없어 근심호는니라. 우리 부배간의 사주팔자나 보여주고 포제상을 받아가라. 어서 걸랑 경혹서. 사주팔자 굴령보난 아기가 히엿득 흡니다. 어떻호민 자식을 봅니까. 경 말하건 당신네 부배간은 사주팔자 굴려보난 칠성을 태와시니 높은 산으로 강 칠성단은 칠성단머금 칠성제나 지나보민 여자 선불 아이도 지얼듯합니다. 어떻호영 칠성제를 지넵니까. 칠성제를 지내젠 호민 사라도 일곱소 자시도

일곱젓 사라도 일곱젓 뭇배이도 일곱 개, 가맹이도 일곱 개 호영 높은  
 데가 먹은 칠성제 지낸신문 아르드래 이십니다. 호를날은 칠성 하강  
 느릴 날에 자손에게 셋길일을 호당 그녕 칠성제를 지납니다. 칠성제를  
 지난느디 호를 날은 장승군이 스승군이 목성군이 명예데친 스승군이  
 거무성군 일곱성군이 장설룡집 칠성제 했던호난 보레 가십니다. 거무  
 성군도 호를날은 밥이난 식건 호끔 줌서. 밥 없느니라. 게른 언치낙 간  
 밤에 칠성해나지 았수과. 이수과. 잇느니라. 일러분 물건이나 이수과.  
 잇느니라. 뭇을 일러뵈디가. 삼성외성 일러부러구나. 내여 놀왕 일러뵈  
 디가. 거 도둑놈이구나. 다느러 가는 보난 눈치좋은 수자전은 단 손에  
 쥘 떡으로 장설룡 왼눈을 맞춰간다. 왼손에 쥘 떡으로 송설룡 느단 눈  
 을 맞춰부난 부배간이 당달 봉석은 데어간다. 장설룡과 성설룡은 아기  
 가 없어서 칠성제 칠성 태와부난 칠성제해야 자식을 본댄 호난 칠성제  
 허당보난 부재간이 혼막당이 깊어그 병나중 가운데 나강 낭 가운데 벌  
 령 죽어볼지 살앙 뭇을 허리. 부배간이 병난중 가운데 나이강 가는 길  
 이 저리 얼굴 가도 아니 죽어저 가는구나. 호를날은 옥황에서 명령이  
 너리기를 장설룡과 송설룡랑 민간에 심은 전멸 시켜볼랜호난, 전멸시  
 키젠해도 부정호게 칠성제 지내난 전멸을 못시켜 명월이서 나는구나.  
 호를날은 옥황에서 명령 되천하길 장설룡, 송설룡이랑 하늘차이 죽이  
 지 말앙 인간들이 돌아호게 시겨볼라. 인간드레 돌아가게 시기난 두세  
 경이 혼막당이 지프난 살수가 잇시라. 열의 무리가 부정호고 서정호게  
 칠성제 지내난 칠성제 지낸 역사로 명월이난 나시니 두세경이 혼막당  
 이 지프명 권제나 받아당 따시 칠성에 나시난 우리 보기엔 권제상은  
 받아당 따시 칠성제 따 보양 칠성제를 지나느디 일곱성군들이 갈앙 성  
 군들린 문딱 모여지눈구나. 모여져 거무성군이 호는치 좋은 수자전으  
 로 하는 말이 야, 눈치 좋은 수자전야, 너 이번이랑 강 칠성제 강 호여  
 두고 장설룡, 송설룡 어둔 눈 강 한쪽이랑 번뜩 밝혀놓으라. 어떻 호영  
 어둔 눈 밝힙니까. 경 말앙, 물명길 강 명길 츠룡 명길, 방삿어, 거문  
 물든 형집 가져강 야금갑에 올때랑 장설룡, 송설룡 누을 때 벽벽 쓸라.

제자를 은척 불러두고 은감흐레 가십니다. 칠성제를 흐는디 남은 성군들은 돈땀 은감할려고 거무성군은 삼성외성에 지물에 머리턱이 헤영 칭칭 가마저라하시니 부적은 서적 은감을 아니하고 우머닐에 담아 앉아 일곱성군이 모여 아정, 우리가 공항밥 먹으면 목걸리고 공헌 올리는 등에 먹은 값이나 해영 갑시다. 가수 용군 수용군 땃을 두고 갑니까. 목심 수침 경과보고 흐영동 가느니라. 목심군이 땃을 땡갑니까. 장설룡과 성설룡 부귀영화 시켜동 가느니라. 거무성군은 땃을 종 갑니까. 거무성군 하는 말은 나는 장설룡, 송설룡 당당봉살 맨들어동 가느니라. (?) 일곱성군이 모여 아장 애길 허여 새저 대난 거무성군 집으로 돌아가시난 눈치좋은 수자전은 하는 말이 선생님아 어떻흐난 오늘은 말없이 제자들을 인척 불러동 어딜 가웁디가. 어찌해서 선생이 길가는디 두를 따라 살펴보느냐. 이거 무신 말입니까. 제자라고 선생이 길 떠나느디 뒤를 따라 보지 않는게 제자가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 눈치좋은 수자전가 완연 나가 장설룡의 집에 갠 삼성 외성이 머리턱에 칭칭 감아 저시니 부정하고 서정흐용 은감을 안 흐노라 하시니 삼성외성 나여주건 장설룡의 집에 들어가건 넘어가던 사람 정심밥이나 흐끔 줍서흐영 어떤흐건 간밤에 칠성이나 지난 역사가 이수계. 잇철훈건, 일러분 물건이나 이수광. 일러분 물건 있느니라 땃을 일러붙디가 흐영, 삼성외성 일러부러건, 그치랑 삼성외성을 내놔. 으거 나 일러분 물건이그녕, 이유고정 흐영 내여 놓건, 이거 도둑놈이 (?) 답을 떠강 탁달혀가건, 너 답을 천떡으로 나그냥 장설룡이 눈을 맞추불랑 왼손에 전떡으로 송설룡 너답을 파작흐게 맞춰불민 부배간이 담배목을 헤어진다. 눈치좋은 수자전은 장설룡이 집에 들어가고 우리 넘어가듯 이 사람이 시장흐영 배고프고 걸울 수가 없습네다. 밥이나 싯건 흐끔 줍서. 눈치좋은 수자전은 선생님 말대로 은감흐영 땡 먹은 값을 쥐여 가쿠다. 장설룡 송설룡 눈은 검은 형겼으로 벽벽 쓰난 어둔 눈이 벱땡 밝아집네다. 밝어져 가는구나. 부배간이 천상베포를 무어가니 마른 유채를 아저간다. 부배간 땃을 땃을 천천히 땡깁니다. (?) 땡기는 것이 유채를 아

저가니 연석들이 너머간다. 연석들이 너머가니 아후열설 춤삭을 잘 간다. 춤삭을 잘 냉정보난 야 여자생불 치하는구나. 이 아기 보상대명 심병 고생형명 나온 아이 풀잎에도 쏠리지 말저. 아래 위도 놓치 말저. 비오는게 여름나면 상다락에 느념 시깁니다. 가을들민 중다락에 느념을 시깁니다. 자슬이 들민 하다락에 궁굴나루 느념을 시깁니다. 이 아기가 그너저나 죽는게 혼 일곱설 곤당 혼난 옥황에 명령이 내립니다. 장설룡이랑 장씨 베실에 왕 삼년 살앙가라. 송설룡이랑 송씨 베실에 왕 삼년 살앙가라. 옥황에서 명령이 내립니다. 명령이 내리란 송설룡이 하는 말이 남자 자식 봐시른 책실이나 드라간다. 여자 자식이안 못 드랑간다. 부인이 미라 간다. 송설룡이 하는 나도 남자 자식 봐시른 책실로 드라가주마는 오 아기로 여자, 나로 여자인 열 하난 같은 배설이 못내놓 가십니다. 7라두고 송설룡이 하는 말이 남은 낭군님아 좋은 의견 이십네다. 경 말앙 느진덕이 정하님 정하여건 일흔 오덧 고무 설정영 살랑길룡 소굽에서 혼 일곱설 나온 아기 가득 왕 (?) 트명으로 웃주고 밥주고 행 질람시랜 햅여동 우리라곤 베실 따엥 살아오거든 중근 문으랑 팔아두고 오로지 녁정 아니문로 자식으로 삼앙 살기 원하어찌합니까. 어서 걸랑 경햅서. 베실자리 살래 가젠 느난 기른 아기 (?) 마흔 오덧 용두것이 서른 요덧 증가시른 진구니까 즈가동 장설룡 송설룡 느진덕이 정하님 복도 웃주고 밥주고 들락키켄 해동 굽에 간에 베실장에 살래 나가가난 칠성젼로 난 아기라 내역을 살장꾼 트명으로 햅록록햅게 나오라가는구나. 어명야, 아방야 나오랑 나를 봄나, 나오랑 진히 동계남 동계남은 강 서작이 금법당 상위드레 대서 사랑이네 상재 중에 금시랑, 군재삼을 받으랜 느여입네다. 권재삼을 받으랜 느여입네다. 느리당 앞에 가는 중은 두 개가 그냥 넘어가고 중은 야 오랑보난 혼 일곱 살난 아기가 삼세번 걸려 어명 아방 불러 울엄시난 햅룡 연대 봐냐. 햅룡 연대 소굽데 담아정 갑네다. 담아정 살서중에 지뵈 들어강 권재삼눈 여레 내줍서. 느진 (?) 권재삼문 내여주난 중이 하는 말이 아기 상점은 권재삼을 미우면 발앙가고 느진덕이 정하님 안 발앙 가루

다. 느진덕이 정하님이 하는 말이 아기씨 상저님은 모상 양 소굽에 살  
 켜한 아기씨 상제 군재삼문 내여줄 수 이 이십니까. 스서중은 스에  
 집 검정 여옥 술랑 나다들락 동서래 흔들흔들 흔들엇지만 흔들엇지만  
 산장문이 들크릭 여라집니다. 여라지난 그 때엔 혼 일곱 살 난 예기 흐  
 룡 속에 담아정 놓은 옷이 주망을 나아간다. 느진덕이 정하님은 야, 예  
 기 밥주래 강보난 살장문은 훌쩍 열어져 불고 아기 상저님은 행방불명  
 되었구나. 느진 덕이 정하님이 흐는 말이 상저로 갇은 하느님이 장설  
 룡잉 장씨 베실에서 삼년 살거 다섯덜에 메왕 읍서. 석달살 베실 자리  
 혼저 여기 메왕 읍서 하느님이 축소를 헤어간다. 아기 상저님이 행방  
 불명 되었습니다. 송설룡이 베실자리에 삼년 살거 이 시간에 메왕 읍  
 서. 하느님이 축을 해였더니마는 송설룡과 장설룡이 내려오랴구나. 오  
 라보난 아기 상저님은 행방불명 되불고 일흔 으넝 고을르 가장 간청  
 간건 행방불명 되었구나 혼 나적 열 아정 아기 상저님이 므을 므을 천  
 천히 땡겨보세. 이 예기가 간밤 무정호여 찾을 수가 없구나. 부배간이  
 밤낮 찾아도 버치고 버치니 몰팡 딱 아래 부배간이 아장 쉬는 것이 무  
 정에 저느라도 들어간다. 스복스복 들어안드라마는 혼 일곱 살 난 아  
 기가 아방, 어멍의 꿈에 선물을 드립네다. 아바님아 아바님아, 어머님  
 아 나를 불고 뜬 맘이 나거든 내일 모리랑 사오시가 친서시가 된 듯  
 호경, 삼바물이 녀를 티허니, 앞에 가는 중 두 개랑 내불고 맨 즈름에  
 가는 중은 심영 타락줄 닥달호으민 알아드려 십네다. 번뜩허게 깨여난  
 보난 설문아기 혼 일곱 살 난 아기 꿈에 선용드렸구나 내일 모레 신시  
 천서시가 진당허난 아나몬세라 삼배중이 녀어가 가는구나. 꿈에 선용  
 드린 것 추록 앞의 가는 중 두 개는 내불고 맨 즈름에 오는 중은 심영  
 닥달하여 가는구나. 스서야 대서야 우리집에 혼 일곱 살 나는 아기 행  
 방불명 되시니 문점이랑 지어달라. 문점 지어가난 손가락이랑 오구립  
 피어 해명 요제 녀영 저디가봄서. 저디녀영 으제봄서 그러적 저레적  
 해가난 장설룡이 으거 수상한 놈이여 도둑놈이여 닥달호여 닥달호여가  
 난 스서중은 열대좌우 진감장은 호대좌우 호룡전대 자존자기. 외몬다

사 벗어두고 묵던 도실 도망친다. 도망쳐 흐롱전등 스굽으로 물로 물에 흐롱전등 스굽을 헤쳐보난 혼 일곱 살 나는 아기가 흐롱전등 스굽에 담아져 왔구나. 대서중이 스서중이 나아주는 권제삼문 받고 흐롱전등 스굽에 혼 일곱 살 나는 아기 담양맹기명 밤이른 혼 일곱 살 나는 아기가 곰배영 됐었구나 아기가 철떡ㄴ치 됐었구나. 설운 아기야, 춤에 지 춤에상에 놓구나 어떻흐난 머리는 전무산에 매방석이 됐었느냐. 느진덕이 정하님 정행 가부난, 머리 안 빚어주난 전무산이 매방석이 돼어수다. 어떻흐난 너는 먼디 먼 홀구산이 봤느냐. 아방 어떻 어느께 오리 살장 끈 트명으로 살피당 홀구산이 되십니다. 어떻흐난 큰 말뚝되고, 입은 작박 입가 됐었느냐, 어떻아방은 언제오리 밤낮 울당보난 콧물, 눈물 흘려진게 작박입이 돼어수다. 어떻흐난 손발은 가마귀 발이 됐었느냐. 야 느진덕이정하님 세수 안해주난 가마귀가 돼어수다. 어떻흐난 배는 두롱배가 됐었느냐 느진덕이 정하님이 밥을 줄 때 하영주고, 아이건 아이 쥐 부난 식탈 난, 두롱배가 돼어수다. 설운 아기야 어떻흐난 그럴수가 이시니, 예라, 젓가슴이나 헤쳐보져. 젓가슴을 헤쳐보난 흰히 복을 나온 아기, 잉태를 아졌구나 아이고 우리 양반의 집 망하엿져, 혼 일곱 살 나온 애기 중이 대저든 몸에 아기 뱃다는 말이 무신 말이고, 죽일 팔로 들러간다. 압뱃디도 벌틀걸랑 뒷뱃디도 벌틀걸랑 스층뺑이 ㄴ져오라. 즈각놈을 불러강, 죽일걸로 해가난 느진덕이 정하님이 하는말이 아이고 이거 어떻 흐는 말입니까. 양반의 집에서 사름 죽인땡 흐는 말이 무슨 말입네까. 죽임보단 나시난 경 말양 무쇄설갑 차그넝 머홀갑 쓰꼭드레 담양 동해영 바당드레 못뿌려 외국바당드레 비와불기가 어떻흐니까. 낮에는 느진덕 정하님말 들영 그 말도 굴없는 말이로다. 무쇄설갑 짜아 놓고, 혼 일곱살 나온 아기 무쇄설갑 속드레 담양 무쇄설갑 진공지까 정그넝 해가난, 혼 일곱살 나온 애기 외활망이 하는 말이, 설운 아기야, 집배석자. 꿩영 오명, 설운아기야 대천 바당에 강 촌물에 경흐당 들영, 촌물에 바당에 물 아래 연삼년 물중세에 연삼년 물위에 습년 살아가민, 바당에 해사 여해지민 촌물 적저지민

아기 등 굴럼ㄴ 한다. 십배석자 꿩 오명, 대천 바당에서 해산호영 지  
 거든 남자 즈식이랑 낱아지거든 촌스매 돌려근 촌만해영 촌소매 돌령  
 보토 창웃 해영 입정 들앙댕기곡, 여즈는 촌만해영 못시난 여자랑 나  
 지건 반스미 돌령 들앙 땡기당 보토 창웃 해영 입쟁돌아 땡기단, 할망  
 이 십배석자 꿩 무췌설갑드레 담으난 친궁지각 존간 외국 바당드레  
 부에드러 무췌설갑 비아간다. 비아부난 물업고 바당에 가난 물난리도  
 연삼년 물룽세기 연삼년, 물위도 연삼년. 삼삼은 구 아홉 헬 살아노난,  
 이젠 제주 바당드레 앞끝 물질 할 물질 물고개로 제주 옛섬 드레 들어  
 으라 가는구나. 들어오제, 압끝 물질 할 물질로 흥당망당 넘어산다. 어  
 덜로 들어사리. (?)도 앞산으로 들어사민 독보냥이 되어지언 (?) 므내  
 든다. 어들로 들리오, 정호건 성산포로 들젠흐니 일출봉이 세어지언 마  
 개부더 문에든다. 돌 므르 들젠흐니 선왕당이 세여지여 문에든다. 제  
 토산은 들젠흐니 토산한집 세여지여 문에든다. 어덜로 들영보리. (?)  
 들젠흐니, 따개루다 문에든다. 모실포로 들젠흐니 돈지 하르방, 돈지  
 할망 세여지영 문에든다. 어덜로 들리오. 자ㄱ네로 들젠흐니, 물이 세  
 여 문에든다. 질세포로 들젠흐니 (?) 못내든다. 저등으로 들젠흐니 축  
 일한집 세어져 문에든다. 금능으로 들젠흐니 삼천 (?) 세여지언, 상허  
 제기, (?)제기 세여지영 문에든다. 한림 수원으로 들젠흐니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세어지언 문에든다. 어제바루 들젠흐니 소금밭 하르방, 소금  
 밭 할망 세여지영 문에든다. 제주시론 들젠흐니 산짓개영 세여지영 문  
 에든다. 압끝 물질 할 물질로 흥당망당 넘어산다. 어들로 들어보리. 호  
 룯날은 저 함덕 수월봉 백물레 앞드레, 압끝 물질, 할 물질로 무췌설갑  
 올라가는구나. 무췌설갑 올렸더니만은 일굽 즈수가 물에 들영 태왓 바  
 세기들 들르곡 물에 들러가단보난, 야 난데어서 무췌설갑이 양 올려시  
 난, 야 느가 먼저 봉갓저, 나가 먼저 봉갓저 이 속으레 은이나 신가,  
 금이나 신가, 서로가 호꿈이나 호명들 싸와갑니다. 싹구마는, 송동제  
 하르방은 송동 돌랑이 들러내고, ㄱ생이 낙으레 갓난, 야 너네들 어찌  
 호고 스이 좋게 물에 들고나지, 어찌흐니 니 머리라 나 머리라 삭제

싸움을 흐느냐. 아이고 으 이일 철이 해줍서. 나가 먼저 봉갓는다, 야 이가 먼저 봉그랜 나의꺼 몬 메웁수다. 이일 철이 해줍서. 경흐건 너네들 일곱 줌수가 나가 절철해주마. 이 소그베 은이 이시나, 금이 이시나, 너네들 일곱 줌수가 갈랑 앓곡, 거죽은 나주라 담배설랍이라도 흐켜. 어서 걸랑 경흐서. 송동짓 하르방은 동석 ㄱ튼 주먹으로 무쇄설캅 삼시번 야착치난, 무쇄설캅이 살닥흐영 앓앙강 보난, 일곱 베염이 옷드레 설설흐에 흐염네다. 야, 노천복이 아때도 설설흐게 대들고, (?) 슬슬흐게 기여들어가난, 일곱 줌수들이 흐는 말이 아이고, 더럽고도 추접흐다. 저런 걸보 우리 일곱 줌수들이 스이 좋게 물에들고 나강 흐끔이라도 싸와졌건 아이고 더럽고 추접흐다. 춤 바끄영 가난, 춤 바끄고, (?), 발로 발고, 손으로 (?) 흐난, 일곱 줌수가 다 신병으로 죽어갑니다. 눈으로 ㄱ르친 줌수는 눈아피도 저어간다. 춤 바꾼 줌수는 입에 부감중도저간다. 발로, 손으로 ㄱ르친 줌수들은 생손아피 생볼아피 저어간다. 일곱 줌수가 몬 신병걸영 죽어가난, 동네 할망은 흐는 말이, 야 니네들 아질도 물어경 나는게, 어디강 점이라도 저보라. 일곱 줌수가 문점을 지나가시난, 어떻흐난 물에 들어가다네 외부 칠성드레 표신했구나. 아이고 예, 경해수다. 너네들 칠성을 태와시니 눈에 베시는 죄를 저시니, 일곱 줌수가 모여그네 칠성 절세납을 해여보라. 일곱 줌수가 모영 칠성 전세납을 해엇더니, 예 예 눈아피도 좋아간다. 입아피 부감중도 좋아간다. 생손아피 생손아피도 좋아간다. 그루 후론 칠성 세납흐연 물에 들멘, 천산왕도 들고 만산왕도 듭니다. 대전복도 대일천 소전복도 대일천, 대구계기, 소구계기 대일천. 멘 망선일식 해여내명, 부재가 되어가는구나. 줌수가 낳은 벗도 업곡, 딸령으네 모여도 혼디 못들고 흐명, 딸령으네 벗도 업곡, 혼 줌수는 이 안드레 들영, 칠성세납 흐난, 정 천사 망그럼젠 흐난, 나도 칠성 갈라주라 나도 세남이다 해보켜. 어서 걸랑 경흐라. 칠성세납을 해엇더니마는, 칠성 표우지 앓으난 점점 재수가 버더지어 가는구나. 일곱 벵이 일곱 베영 아리롱아 다리롱아 공산아기 비란아기 청단아기 물안아기 대단아기 맹주아기 초롱아기 빼영짱개

소뿔짱개 활 (?) 구렁 대신 녀신국 칠성한집 마누라님 일곱 그 딸이 칠성천사 물 받앙, 오라그리라, 어디가진, 오라 우리 시름뚜에나 올라가게, 시름대에 올라간다. 시름대에 올라강 시름을 쉬난, 우리 시름 쉬 어시메 느념대 올라가게. 느념대 올라강 느념호영, 우리 시원하다 오라 산짓개로 느념가게. 어서 걸랑 경홉서. 시름대에 올라강 시름중, 느념대에 올라강 느념호영 산짓개루 들어간다. 산짓개로 들어가니 송동젯 하르방 며느리는 연세답을 산짓물에 가는구나. 간 보니 일곱 배염 어뜨게 금바둑에 배깃백깃 느념을 호고, 옥바둑에 배깃배깃 일곱 벗드레 느념을 해어가니, 송동젯 하르방네 며느리는 연세답을 설러두고 금바둑, 옥바둑을 건져냥, 집으로 오라간다. 금바둑, 옥바둑 봉강으랑, 올려레 바랭보난, 일곱 배염 어떠여, 슬슬호게 정낭아래 기여가는구나. 송동젯 하르방네 며느리 호는 말이 우리 (?) 조상에게 나 압드레 나 치매통드레 어서웁서. 치매통을 받으니, 일곱 배염 어뜨게 치매통들에 즐줄호게 들어오가 가는구나. 대천난감 오라간 호구나. 경 (?) 슬슬호게 기어든다. 죽담 고 우테도 슬슬호게 기어든다. 살레 알드레도 슬슬호게 기어든다. 기어들영 혼 몇털 살아가니 송동젯 하르방네 며느리네 집이 천하거부 부제가 되어가는구나. 송시언이건 칠성 입곰 붙들어 호는 말이, 우리 즈손 하나만 신디 오랑 부제팔망 해주민 되느냐, 오라 즈손들 그루 댕기멍 부제팔망 시겨주게. 어서걸랑 경홉서. 설운 애기 답답호고, 굵굽호난, 시름대에 올라글라, 시름 시멍, 느념대에 올라글랭, 느념호랜, 느념호고 시름시언 (?)야 어디로 가리오. 오라 우리 이제라그네 더 시원ходи 놀기 좋다. 우리 칠성골르드레 제주시 칠성골레나 들어가게. 어서 걸랑 경홉서. 칠성골로 가젠 호민 설운 아기들아 크사채만 가곡, 칠성골은 가젠 호민 대로 한질 건더당 무도한 인간지 백성들 호롱도깨비 전방강 더덜 해볼민, 야 지옥살일 해어질거여. (?) 세월 (?) 전작지 알루, 궁불 알루, 둑매 탐에문으루 서둘경 칠성골로 가게. 어서 걸랑 경홉서. 세웁 모두 재입성 호여 놓고, 옷은 그라입젠 호난, 그 햇빛 맛앙 아니된다. 오랑 우리 정저나무 그늘 날로 옷굴아 입게. 정저낭

그늘알로 이젠 들어강, 묵은 옷은 댕땡 벗어두고, 세옷 베입성 해옴네다. 그버부로 남아래 강 보민, 칠성 글벗은게 어십니까. 그거부로 글버는 버리고, 대입성 흐영 담메부로 전자 비알로 공덜 알로 술술져 제주시 칠성굴로 들어간다. 칠성굴로 들영 느낌하고 시름시고행 놀앙오난, 생각해보난, 막은 창이난 다갈수가 어시난, 일곱 끝들이 아장 이젠 의논 공론 흐는구나. 우리 이제 들어오거랑 시념시고 오느냐, 뭐, 이제도 뭐 살아지마는 막은 창이엔 혼난, 구경홀디 다 구경하고 혼난, 막은 창에 간 (?) 우리 가지갈랑 얻어먹영 살앙가게. 어서결랑 경홉서. 큰 딸애기, 어덜로 가거느냐. 나는 (?) 조옴네다. 셋딸애기 어덜로 가것느냐 동과원이 조옴네다. 이제 셋째 딸애기 어덜로 가것느냐. 서과원도 조옴네다. 느케 딸애긴 어덜로 가것느냐. 동창케도 조오수다. 서창케도 조오수다. 설은 애기 부제팔명 홀로구나. 다서체 딸애긴 어덜로 가것느냐. 나도 갈디 십니다. 가는 순간도 츠지 하고, 오는 순간도 츠지 흐쿠다. 설은 애기 곤디 질루구나 나고가단. 여서째 딸애기 어덜로 가것느냐. 아이구, 어머니 나도 갈 디 이십니다. 어덜로 가것느냐. 나를 (?) 건볼게 마를 땡기명 마브롭은 불민 청구랭이 백구랭이 흑구랭이로 즈손돌 눈이 패신시키쿠다. 하니브롭은 불민 청물뻘기 흑물뻘기론 눈에 패신시키쿠다. 찻브롭은 불민 청만정이 덕만점에 낫줄럼에 돛줄에짱 싸알 뻘염으로 그래 패신시키쿠다. 홉씩은 야, 인간지 백성 땡기당 재수 굿은 백성 들리민 으거 물 패경호여근 방장 처살 호요불민 나는 칠성천사나 받아 먹영 사쿠다. 설은 애기 영안 불리켜마는, 몽닌 나쁘다. 어머니은 어덜로 가쿠과, 나두 갈 때 잇느니라. 나는 여름 나민 상다락에 느낌하고, 가을 들민 중다락에 느낌하고, 저실들민 하다락에 궁들안들 느낌하당, 인간지 백성들 서경땅에 별도 수만국식 버려농장 시겨사민, 봄도 석들 누른 역강, 여름 석달 누른 역강, 저실 석들 누른 역강, 입춘 스절 돌아보민 즈손이 생긴일 받아들령 서경 (?) 달만 크스천백미도 연마디 호여가민 천백미도 연마니 밧다명 사키영 아이고 어머니은 베가 뿡그라케 잘 엇어먹영 살로그나마심. 설은 애기들아 나

잘먹으면 느네 아이 주느냐. 나 인정 받을 때랑 어서느네 여섯 성제 어성 오랑 그법으로 칠성은 흐젠 흐민 문남제 일곱게 꼽는 법입니다. 으떨 적시로 문남제 일곱게 꼽는 법입니다. 칠성한집 마누라님 아이두 나 다랭이루 공단아기 비단아기 창단아기 모단아기 일곱강도 칠성, 버영 장대, 빈 장대, 높은 장대, 마을 공채, (?)대신 (?), 칠성한집 마누라님 아리롱아 다리롱아 공단아기 비단아기 창단아기 모단아기 대단아기 냉주아기 초롱아기. 무색배 아정오던 칠성한집 마누라님 밧끌딜로 성불 칠성, 안드로는 제방 (?) 칠성. 칠성한집 마누라님. 각재기석 가지 문딱 갈랑 수더 난산국도 시어수다. 본산국도 시어수다. 각성 바지 각성 (?) 어머님 베 밧거디들 탄생호영, 혼 일곱술, 으덥술에 근당호민, 나제 후에, 국민학교 육학년 졸업호고, 중학교 습년 졸업호고, 고등학교 습년 졸업호영, 선성님의 인도 지도 받아동 과거방, (?), 대학교 흐는 자손들 각성 바지, 각성 처니 아닙니까. 나라에 명령이른, 선성님의 명령받양, 인도 지도 받양, 나온 즈손들, 동이 가나 서에 가나, 바니 아행, 나이 출행 땡길지라도 녁나고 혼날일은 나게 말고 찾손냥을 상경 위도 칠성한집 마누라님 아피 변신희쟁 맵성. 멩과보공 빌령사기 (?) 칠성님 덕입네다. 동두 칠성 대등군, 서두 칠성 대등군, 남도 칠성 대등군 황두 칠성 대등군님, 칠성 전기를 모두 손아 낵 즈손들을 각성바지 학생들, 대학생들 아넵네까,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라도 땡기당 녁나고 혼날일을 나게 맵서. 깡괘 하게 깡도 (?) 앞에 일을 나게 말고 관공서에 발려나고, 발려들일 나게맵서. 칠성한집 마누라님 찰려농게 어성, 아이고 그냥, 옛날 전설이 들으켄 으랑 (?) 팔즈 구진 여자 신평어 내엄수다. (?)지 맵서, 신글지 마랑 만족산 본산국드레 제난이며 하감함서예-.

## 5. 기타

### 1) 개인 토신제

개인 토신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낸 것은 없지만 가축의 번성을 위해 많이 지낸다고 한다. 보통 정월에 집이나 산에서 지낸다. 제물은 돼지고기나 포회(소고기 말린 것)을 쓴다.

### 2) 신문(神門)

제보자에 의하면 묘비를 세울 때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정면이 아니 옆으로 세워야 한다. 또한 '산담'에 귀신이 출입할 수 있도록 '실문(神門)'을 만든다. 만약 실문을 만들지 못할 때에는 안팎으로 '팡'을 놓아야 한다.

<제보자 : 문원숙 (남·73세)>

비를 세울 적에는 말이여, 여자는 좌, 아, 남자는 이 왼쪽에.

<조사자 : 남자는 비 왼쪽에 마씨?>

왼쪽에 여디, 여디.

<조사자 : 비에 딱 맞춥으네 마씨?>

아니게, 여기게 여기. 제전 앞이. 건디 이 산은 이산은 보나마나 말이여, 여자거든. (조사자 : 실문(神門)을 만드는게) 남자는 왼쪽으로 한다. 제전을 앞자리와 곱종하게 한다. (질문자 : 남자는 왼쪽이고) 여자는 오른쪽에 한다.

<조사자 : 무사 경호는 거우과? >

아, 그건 구분이 있지. 남자가 우(위)니까, 그건 남자용법이고. 또 비석도 남자가 왼쪽에 세운다. 또 비석도 말이여,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후에 상식 문제거든. 전면(정면)으로 세워져가 있지 바로 앞에. 전면으로 세우면 안되고, 저렇게 세워야 해. (질문자- 옆으로?) 어 옆으로.

<조사자 : 그건 제주도식이과, 육지식이과?>

육지식은 몰라도 제주도에는 그것이 학설적으로 그렇게, 우리 들었어. 빈 세운 것이. 앞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세우는 것이 예의다.

<조사자 : 근데 실문은 무사 세우는 거 마씨?>

어? 건 귀신들 출입하는 문. 이 산은 집이고, 이 산담은다가 말이여 웃담이니까. 실문은 출입하는 문. 그리로 만일 이 실문을 세우지 못할 때에는 실문 대신에 팡을 놔. 안팎드레. 안에도 노크 밖에도 노크.

<조사자 : 계난 실문할 때 실문은 귀신할 때 신자 그 신자지예?>

그 신자하고 저, 문문자.

### 3) 셋쫌 도채비

거의 모든 제보자들로부터 저지에는 도채비에 대한 신앙은 없다고 들었다. 그러나 심방 김순흠씨(여·73세)로부터 제보를 받는 도중 ‘셋쫌 도채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다. 이 ‘셋쫌 도채비’가 저지지역민 사이에서 믿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믿어지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여기 제보 내용을 옮겨 놓는다.

<조사자 : 돛(돼지)도 올리고예?>

응 그렇지. 굿할 때는 돛 안올리고. 굿 할 때는 그 나쁜 잡부, 옛날 할머니네 말로는 ‘셋쫌 도채비’ 그런거 걸린 사람은 그것(돼지) 드리지.

### <참고 자료- 저지본향에 관한 본풀이>

다음의 (1)~(6)까지는 1960년대 채록된 것으로 당본풀이는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사전에

나오는 저지리의 제보자들은 확인 결과 대부분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1) 저지분향 : <일뢰당>

다물 허릿당 일뢰중즈. 호근 므르서 내햏여온 정씨부인 큰똥애기. 이 할집님은 즈손들에, 외손지나 성손지나 딸랑 땡이곡, 성손지나 딸랑 땡이곡, 일분을 가나 대국을 가나 어딜 가도 딸랑 땡이기로 잘 대접햏여 사 홉네다. 제일 매달 3일, 7일.

<한경면 저지리 男巫 변갑용(47세)>

(2) 저지분향 : <허릿궁할망>

대정 호근므르 정좌수 부인이 남펜네 부배간 정리는 아니무어도 유태를 7져 아방눈에 굴리 나고 어멍눈에 시찌 나, 귀양정배를 보내명 “어서 느 가고픈대로 가라” 햏난, “어딜 가린!” 햏연 나산 게 햏술머지로 햏나, 두 개, 일곱 꺽 낱고, 그 애길 업을 수라 잇어, “어땡 질루린!” 햏연, “므을 므을마다 만민즈손에 서천제민 공연을 받자” 햏연 민 츠지, 므을 츠지, 호적 츠지, 장적 츠지, 인물도성책 츠지 햏여, “큰 아들랑 어딜, 이 애길 보내리?” 생각햏단, 괴수풀 삼백관 산신대왕으로 보내고, 셋아들은 맹월 종구실 고완이 본향으로 츠질 보내고, 말좃아들은 영역햏고 똑똑햏여 요왕햏즈 요왕태즈 보내여 용궁을 츠지햏되, 인간백성이 아이 어른을 굴리지 못햏니 장적츠지 인물 도성책 츠질 햏고, 맹월 삼문 읍중 상교 상청츠지 호적문을 츠지, 양반, 중인, 하인올 다 굴리잡은 문세르 잡고, 안으드레당 죽은또 니켓 아들은 올라사민 하원당 처가부처는 상가왓당 술일한집. 죽은 말좃아들은 널개 큰당알로 좌정햏 축일한집 이 할으방은, 햏디 사는 할망이 뇌발탄 걸 먹으난 “추접햏다. 햏연. 손두물 머리로 가 좌정햏니 용궁도릅서 가는 선, 오는 선 츠지햏고. 그영햏난 이 할망은 널개 큰당한집이 됩네다. “큰똥애긴 어딜 가린?” 햏난, 당멸 육꿀을 츠지햏연 허릿궁할망으로 좌정햏고, 호적 장적 인물 도성책 츠지햏 토지분향. 셋똥애긴 상명 느지리 캐인

터 촌지하고, 족은 딸은 가지갈란 조숫물, 낙친은 매앗인밭, 매족은딸은 가지갈라 한 개 족은당에 좌정하였수다. - 제일 매3일, 7일, 13일, 17일, 23일, 27일.

<한경면 고산리 女巫 김기연(71세)>

(3) 저지본향 : <허릿당>

허릿당 한집님은 호근므르 정좌수 큰딸애기, 개남밭 가운데로 좌정하여오던 허릿당 일퇴중즈 정씨할마님. -제일 매 3일, 7일, 13일, 17일, 23일, 27일.

<한경면 저지리 女巫 변옥천(35세)>

(4) 당멸본향 : <허릿당>

당멸 허릿당은 드신므들로 가지갈라온 정좌수 말갯딸애기 됩네다. 당멸오름 중허리에 좌정호 일퇴 한집님, 만민단궐에 인정밭양 그늘롭네다. 제일, 매 3일, 7일, 13일, 17일, 23일, 27일.

<한림읍 동명리 女巫 조해순(53세)>

(5)저지본향

당멸본향 한집님은 호근므르 정좌수 따님애기우다. 호근므르 정좌수 부인이 아방 어멍눈에 굴리나난 귀양정뻔 보내난 검은오름 드신므듬에 오란 사느디, 애길 나스게 일곱을 낳농난 홀 영업이 엇어, 밧을 지경이나 갈랑 만민단궐에 서천 저민공연을 밧양 살젠 하였수다. 그영혼난 큰아들은 종구실 고후니 큰당한집, 셋아들은 물만 국서 맹월 상고 상청, 말갯아들은 하원당 제지명. 당멸 육꿀을 촌지헌 큰딸애기, 셋딸애긴 느지리 캔툼, 말갯아들은 널개 한집, 만년폭낭알로 좌정하고, 낙친은 매앗인밭 좌정하고, 그영혼난 일곱애기라 다 질루지썸 땅초지, 물초지, 인물 도성책 촌지하고 단궐들을 그늘롭네다. 제일 매 3일, 7일, 13일, 17일, 23일, 27일.

<한경면 저지리 女巫 최원인(71세)>

(6) 저지본향

호근므르 정좌수똥, 큰똥애기 서문발서 쳇당설림., 검은오름 드신  
므들 축일본향, 아방국은 황서국서 도서님, 오일본향, 객거린 애기씨본  
향, 가지갈라 큰똥애긴 당멸 허릿당, 초사홀, 초일뢰, 열사홀, 열일뢰,  
쑤무사홀, 쑤무일뢰, 혼돌 으숯번 상을 받고 난는 날은 생산츄지 죽는  
날은 물구츄지 혼돌 으숯번 일은으둑 상단골, 마흔으둑 중단골, 아으단  
골 노단골 받아오던 일뢰본향 한집, 아방국은 용선다리 초흔를 보름  
상을 받는 한집, 가지갈라 죽은 할망 짐씨할망, 안으드레 밧으드레 상  
을 받던 종애물거리 으드레 본향한집. 제일, 즈손에 생기 맞은 날.

<대정읍 하모리 女巫 좌군타(55세)>

■ 조사자 : 백승주(94), 김민찬(95), 허유미(98), 고경실(98), 강민숙(99)